



감리회 규정 10개 이단단체

이단대책매뉴얼

조직신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선희 교수 & 김현식 교수 공저



웨슬리신학연구소 MRN

INDEX

I. 감리교회가 정한 이단-교리적 해석을 중심으로..(3)	
1. 신천지의 사회적 이슈	3
2. 한국 교계와 이단 현황	3
3. 감리회와 이단	3
3.1.감리교 교리와 장정	4
3.2.2023년 감리교 규정 이단현황	5
4. 이단의 교리 분석	6
4.1.신천지	6
4.2.안중희	6
4.3.구원파	7
5. 실전 이단대응	7
II. 웨슬리신학의 조직신학적 체계..(8)	
1. 계시론과 성경론	8
1.1.일반계시의 정의	8
1.2.특별계시의 정의	8
2. 하나님론	9
2.1.삼위일체 교리	9
2.2.예정론	10
2.2.1.일상적 삶에 관한 예정	10
2.2.2.구원에 관한 예정	11
3. 인간론	13
3.1.하나님의 형상 교리	13
3.1.1.하나님의 형상의 구조	13
3.1.2.하나님의 형상의 각 기능의 역할	15
3.2.죄론	17
3.2.1.원죄의 정의	17
4. 그리스도론	17
4.1.양성론	18
4.2.속죄론	21
4.2.0.속죄론의 정의	21
4.2.1.그리스도의 의(義)	21
5. 구원론	23
5.1.구원의 순서	24
5.1.1.선행은혜	24
5.1.2.회개은혜	25
5.1.3.칭의은혜	27
5.1.4.성화은혜	29
6. 교회론	35
6.0.교회론의 정의	35
6.1.교회론의 본질에 관한 교리	35
6.2.교회의 하는 일에 관한 교리	36
6.2.1.종교강령 25개 조항 제13조	36
7. 종말론	40
7.0.종말론의 정의	40
7.1.개인적 종말론	40
7.2.개인적 종말론	43

I. 감리교회가 정한 이단-교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1. 신천지의 사회적 이슈

2023년 현재 세계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질병, 의학, 경제, 사회 등 어디하나 제외된 영역이 없을 정도로 연계된 사회망 구조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사회와 코로나19 사태는 다른 국가와 달리 특이할만한 사안이 하나 더 소개되고 있다. 바로 코로나19와 이단 신천지와의 연계성이다. 처음 대구 확진자의 신원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별칭은 한국교회 입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진통을 겪으며 피해를 주던 '신천지 단체'를 단시간 내에 국가적 문제로까지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던 이들에게서조차 '신천지'의 무분별한 포교전략과 이들의 사회적 포효를 다룬 언론의 보도는 이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단체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하였다.

2. 한국 교계와 이단 현황

지난 2015년 통계청에 의한 한국의 인구수(49,052,389)에 대비 기독교 인구는 9,675,761명¹⁾으로 조사되었다.(참고로 여기서 '기독교'라 정의는 하였지만 국가의 조사에서 '정통'과 '이단'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리교인은 1,468,442명²⁾으로 전체 기독교인의 약 15%(15.07315)에 해당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수 대비 이단의 분포는 어떠했을까.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이라 규정된 단체들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들을 취합해보면 이들의 인구수는 약 200만명을 추산하고 있다.³⁾ 이는 전체 기독교인 대비 약 25%에 가까운 수치인데 이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밝히고 있지만 4명 중 1명은 이단이라는 뜻이 된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단에 속한 이들이 많고 이들을 접하는 것 또한 그리 어렵지 않다 것이다. 세부적 종파로만 보면 약 200여개에 달하며 그 가운데 한국의 각 교계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이라 발표한 단체만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약 109개 단체에 달한다.⁴⁾ 그리고 이들 가운데 한국 사회 및 기독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대표 3개 단체를 꼽자면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를 들 수 있다.

3. 감리회와 이단

한국 사회에서의 큰 문제로 드러나게 된 이단 '신천지'가 여러 언론사에서 집중 조명되면서 이들이 한국교회를 향한 포교전략 조사서가 발견되었다. 그 중 감리교회는 순복음교단과 함께 포교대상 'A급'으로 소개되었는데(A급:순복음,감리/ B급:장로,성결,침례/ C급:이단, 무신앙)⁵⁾ 이단이 'A급'으로 분류할 만큼 감리회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대응이 취약했었다는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였다. 현재 감리회의 경우 이단에 관한 규정은 '이단'과 '예의주시'로 분류하고 있다. <2020년 감리교 규정 이단현황> 참조. 감리회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교리와 장정을 준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내용을 참조하여 혹여 본의 아니게 이단 단체와 연류되어 피해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 통계청(kostat.go.kr) 인구총조사 : 2015년 종교 인구 자료(기독교)
 2) 감리회 본부 선교국, 「기독교대한감리회 2015 교세현황」 (kmc.or.kr)
 3) 현대종교, 「이단정보-단체정보 검색」 (www.hdjongkyo.co.kr)
 4) 김현식, 「이단대응 가이드북」, (대전: Holy Mountain, 2019), p.5
 5)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2020. 2. 23일자)

3.1. 감리교 교리와 장정 2021

제3편 조직과 행정법2(5-10장)

제7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373]단 제17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이단대책위원회<개정>

1.감리교회의 정통 교리와 신앙으로 감리교회와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이단대책위원회는 해당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 선교국 총무,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개정>

3.이단대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제4편 의회법-제4장 지방회-제1절 지방회

제6절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 처리위원회

[579] 제79조(직무) 6. 이단집단의 지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

제4편 의회법(8-12장)-제8장 연회-제1절 연회

제2절 연회분과위원회

[597] 제97조(연회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7)이단대책위원회 : 이단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지역별 이단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이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제7편 재판법-제1장 일반재판법-제1장 일반 재판법

제1절 총칙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1404]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⑧ 이단 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다만,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이단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제8항, 제13항은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③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이단 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제5항, 제6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

[1406]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개정> ⑤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1-11)**7. 이단대책위원회 규정<규정>**

【2128】 제1조(목적) 감리회의 정통적 신앙이나 신학을 오도하는 사이비사상이나 이단사상에서 감리교인을 수호하는 감리회의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129】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 ① 해당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 ②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개정>)
- ③ 선교국 총무<기정>

④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명<개정>

【2130】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위원장 1명<개정> ② 부위원장 1명 ③ 서기 1명

【2131】 제4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132】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정통교리의 보존과 해설, ② 이단사상에 대한 규제와 대책 강구
- ③ 이단사상 소유자나 동조자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 제소 또는 총회에 직접 회부하는 일에 대한 심의, ④ 정통적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설교나 서적을 출판한 이에 대한 조사와 이단사상 주차자에 대한 제소<신설>

- 1. 정통적 교리라 함은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인들의 공통적 신앙고백과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 및 신앙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한다.
- 2. 이단사상을 전파하거나 정통적 교리를 비방하는 이에 대해서는 그 비중에 따라 재판위원회에 직접 제소한다.

【2133】 제6조(정통적 교리와 감리회 교리에 대한 연구 출판) 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해설이나 연구 등에 대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며 출판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다.<개정>

3.2. 2023년 감리교 규정 이단현황

년도/회차	단체명(이단규정)
1998/23	류광수 다락방전도운동 예장전도총회
2014/31	구원파
	권신찬-유병언(기독교복음침례회)/박옥수(대한예수교침례회)/이요한(대한예수교침례회)
	몰몬교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문선명 통일교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안상홍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안식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여호와와의 증인 왕국회관
	이만희 신천지교회 (무료성경신학원) Shinchonji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동방번개
	정명석(JMS) 기독교복음선교회 국제크리스찬연합
년도/회차	단체명(예의주시)
2014/31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김기동 귀신론(베뢰아아카데미)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
	박윤식 대성교회(現평강제일교회)
	변승우 사랑하는교회 (구 큰말음교회)

4. 이단의 교리 분석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에는 그들만의 ‘교리’가 주된 포교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 가운데 한국 사회와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대표 세 단체인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만 보더라도 그들만의 교리서는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단과의 전쟁은 그들의 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허구성을 얼마나 명료하게 반증해주는가로 결정되게 된다. 이후 그 빈자리에 기독교의 정통교리인 ‘구원교리’를 정확히 안착시켜주는 것으로 이단사역은 마무리가 된다.

4.1. ‘신천지’(정식명칭: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http://www.shincheonji.kr>)

다양한 수단과 치밀한 방법으로 공격형 관계전도를 실시하는 이들의 포교전략은 한국 기독교인 10명 중 3명이 이들과 접촉한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다.⁶⁾ 이들의 교리서는 다양하다. 포교된 이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은 ‘복음방’ 관련 교재로 2~3개월 정도의 과정을 통해 여러 종교와 경전을 소개받고 오직 성경만을 선택하게 한다. 이것은 기존교인들에게 있어 오직 성경적인 듯 한 착각을 불러오게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재해석, 그들만의 교리 틀 안에 가둬놓기 위한 하나의 미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복음방 교재가 마쳐지되면 **센터과정의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경의 모든 것을 비유(직유해석)로만 해석하게 하여 이제 계시록의 약속된 목자가 누구이며 이제 앞으로 구원받게 될 144,000명이 누가 되어야할 것인가를 단편적으로 주입받게 된다.

이를 분석해보면 교주를 통하여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들을 수 있고 제한된 144,000이라는 수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과 헌신을 다 쏟아야만 구원은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특정인물을 구원자급으로 인식하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만 되는 인간행위 기여도를 생각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인간이 인간의 구원자, 대변자로서 서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한다. 또한 인간행위에 따른 구원을 강조하므로 예수님의 공로는 전혀 의미가 없게 되고 무엇보다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에도 이들에게서는 승천 이후 하나의 영으로서 존재하여 이 영이 자신들의 교주에게 임하므로 역사된다고 믿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말하고 자하는 구원관에는 예수의 영이 임한 교주가 봉인된 책(계시록)을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은 가능하고 제한된 수의 구원을 제시함으로 이들 내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행실의 업적이 타인보다 월등할수록 구원의 확률은 높아지게 되는 구조이다.

4.2. ‘안증회’(정식명칭: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https://watv.org/ko>)

체계적인 집중적 교리 교육(전도훈련)으로 초급 3단계, 중급 2단계, 고급 2단계로 총 7단계 교육을 하고 있다. 교리에 있어 이들 역시 이단들의 공통점인 정통기독교의 교리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다.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 하나로 여기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위격(位格)을 부정하므로 자연스레 안상홍을 보혜사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하나님의 신부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들 집단에서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까지 만들어 받들고 있다. 이들의 성격해석 논법은 부분적 문장해석과 추론이 접목되어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통기독교의 ‘삼위일체’교리와 구원교리인 ‘이신칭의’ 교리를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이들의 교리에는 소위 말하는 ‘양태론’⁷⁾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

6) 기독교 타임즈 제1064호(2020년 5월 2일자) 2면.

7) 양태론(樣態論, modalism)-하나님은 한 분인데 각 시대마다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나신다는 이단론. 구약의 경우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신약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결과 지금을 성령시대로 보며 이는 예수의 이름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이름인 벰전2:4의 흰돌 위의 새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 된다.

4.3. 구원파(정식명칭: 기쁜소식선교회, <https://www.goodnews.or.kr>)

구원파의 경우 세 분파로 나뉘어 진다. 기독교 복음침례회(유병언.권신찬), 대한예수교침례회(이요한),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로 정통교회에서는 이 세 단체를 묶어 ‘구원파’라는 별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구원관’은 1960년대 시작된 ‘깨달음에 의한 구원’이다. 이들 세 단체 중 현재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은 1983년에 조직된 박옥수 계열의 ‘기쁜소식선교회’인데 당시 내세운 슬로건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로 체육관 등을 빌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성경 강연회를 열고 있다. 이후 ‘IYF’라는 단체를 조직, 2001년 초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세계 35개국에 지부를 두어 세계문화체험박람회, 영어말하기대회, 창조과학세미나,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면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포교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라시아 합창단, 기쁜소식사(출판), GNN(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문화적 접근도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구원파 교리의 위험성에는 인간의 죄가 한 번 용서되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죄문제라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구원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 하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인간의 죄의식에 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한다. 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기에 죄문제에 손을 대면 델수록 점점 어렵게 된다고 가르친다. 마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듯 하지만 실제 죄에 대한 방치가 된다. 죄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간의 공로가 전혀 첨가될 수 없다는 말과 죄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이다. 그럼에도 구원파의 논리에는 죄 문제 자체에 대해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통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인간의 신념, 지적동의와 같은 인간 생산물에 불과하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⁸⁾

5. 실전 이단 대응

신천지와 관련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감리회의 경우 이단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교회 자체 내에 기본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1차적으로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 현장 예배의 정상화가 시작될 경우 교회는 이미 잠입해있었는지 모를 신천지 위장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고 혹여 교인들 가운데 이단 초기 공부를 경험하고 있었는지 모를 이들을 위한 정화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감리회 홈페이지에 ‘이단필터링 조사용지 2부’가 게재되어있으니 교회에 예방용으로 사용하시길 권한다. 이후 월1회 정도라도 담임 목회자가 직접 이단판별을 교육하므로 교인들 스스로 이단경계를 함과 동시에 혹여 공부했던 이들이라도 스스로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관하여도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단전문가들의 의견 가운데는 신천지 효과로 인하여 이단 탈퇴자들이 3~4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들 가운데 발견되는 이단이다. 최소 6개월 이상된 이단이라면 가족

로 나타난다는 이론.

8)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에서는 우선 모른척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까운 이단전문상담소에 의뢰하여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한다. 만일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인터넷 상으로 접속하거나 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로 연락하시기를 바란다. 이단대응 통합사이트(www.2danmap.com) 이 사이트는 전국 이단관련 전문기관들을 연결, 통합한 사이트이므로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다.

II. 웨슬리신학의 조직신학적 체계

1. 계시론과 성경론

1.0.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전체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뉜다. 특별계시는 39권의 구약성경과 27권의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필요충분한 진리로서 신뢰할 수 있게 기록되어 있다.

1.1. 일반계시의 정의: 일반계시는 자연과 역사 및 인간 내면의 이성과 도덕률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과 정도로 자신을 피조세계 전체의 창조주요 섭리주라는 것을 알려 주시며,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을 갖고 도덕적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계시이다.⁹⁾ 이 계시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들에게는 기본적인 윤리도덕이 가능하나, 또한 이 일반계시를 왜곡할 경우에는 성경이 바알숭배라고 표현하는 소위 일반 종교들 또는 각종 우상숭배가 나온다. 그러므로 일반계시만으로는 인간의 구원은 가능하지 않다.

웨슬리의 가르침:

일반계시의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웨슬리는 그의 설교 “믿음에 의한 구원”(Salvation by Faith), I.1에서 가르친다: “하나님은 이교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믿도록 요구하신다.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만물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동료 피조물들에게 도덕적인 덕과 정의와 자비와 진실을 정성껏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도록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헬라인도 로마인도, 심지어 스키타이 족이나 인도 사람도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 미래에 있을 상과 벌, 따라서 도덕적인 덕행은 의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서, [‘나는 그런 것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왜 이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하면] 이것은 단지 [말 그대로] 이교도의 믿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1.2. 특별계시의 정의: 특별계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자로서 계시하시되, 특정한 장소들과 시간들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자요 심판주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계시이다. 이 계시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필요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게 기록된 것이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이다. 이 66

9) 롬 1:19-20.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²⁰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권의 성경 이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담고 있는 여하한 매체가 없으며,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 특별계시라는 것이 있다면 이 66권의 성경에 일치하는 것만이 특별계시로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웨슬리의 가르침:

(1) 성경이 구원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담은 유일한 매체라는 가르침: “나는 한 가지만을 알고 싶다. 즉, 하늘로 가는 길, 저 행복한 기슭에 안전하게 상륙하는 방법을 나는 알고 싶을 뿐이다. 하나님이 손수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자신을 낮추어 이곳에 오셨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하늘로부터 오셨던 것이다. 그는 그 길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오, 나에게 그 책을 주시옵소서! 어떤 값을 치러도 좋으니 나에게 그 하나님의 책을 주시옵소서! 나는 그 책을 갖고 있다. 이 책 안에 나를 위한 지식이 충분히 들어 있다. 나는 한 책의 사람(homo unius libri)이 되련다.”¹⁰⁾

(2)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담은 필요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매체라는 가르침: “개신교도들의 믿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the oracles of God)에 명료하게 계시된 구원의 필수적인 진리들만을 받아들인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된 것은 무엇이나 다 믿음의 대상이다. 그들은 성경 안에 분명하게 들어 있고, 성경에 의하여 명료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이 믿지도 않고 더 적게 믿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발에 등불이요, 그들의 모든 길 위에 빛이다’. 그들은 감히 어떤 구실로서도 성경에서 벗어나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기록된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실천의 기준 전체이며 또한 유일한 기준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믿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행하기로 공언한다. 이것이 개신교도들의 진정한 믿음이다. 오직 이 믿음만을 그들은 굳게 지킨다.”¹¹⁾

2. 하나님론

2.0. 하나님론은 하나님의 인격(the Person of God)에 관한 교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the Work of God)에 관한 교리로 구성된다. 전자의 핵심교리는 삼위일체교리와 하나님의 전지, 전능, 무소부재의 속성의 교리이고, 후자의 핵심교리는 예정론, 창조론, 섭리론이다. 여기서는 삼위일체론과 예정론만을 다룰 것이다.¹²⁾

2.1. 삼위일체 교리: 감리교의 “종교강령 25개 조항”의 제1조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교리로 받아들인다. 이에 의하면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신즉,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몸이나 부분들이 없으며,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가지신 분이시고, 가시적 및 불가시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시다. 이 신성의 일체 안에 하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가지신 세 인격들이 계신즉,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

10) John Wesley, “The Preface” to “the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in Three Volumes”(1746년), 5.

11) John Wesley, Sermon, “On Faith”, 8.

12) 종교강령 25개 조항, 교리적 선언(1930년), 감리회 신앙고백(1997년), 사회신경에 창조론과 섭리론의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주제들에 관련된 이단사상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 주제들에 관한 교리적 표준을 만들 것을 권고함.

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각각의 인격으로서는 독립된 각 인격들로서 피조세계를 향하여 상호관계 안에서 일하시나, 피조물과는 달리 부분들로 나뉘지 않는 신성(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감리회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의거하여 온갖 형태의 양자론(예컨대, 아리우스주의 또는 소위 역동적 군주론의 여러 종류들)이나 온갖 형태의 양태론을 성경적 진리에 일치하지 않는 이단설로 여겨 거부한다.

웨슬리의 가르침: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 이 셋은 하나이다.’¹³⁾ 나는 이 사실을, 즉 하나님은 셋이며 하나이시더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방법은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 계시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계시되어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지혜인가? ... 이 주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여 계시해 주신 것이 무관심해도 되는 주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특히 그러하다. ... 그러므로 나는 이 셋이 하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력 있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 그들을 위한 나의 소망은 오직 그들이 ([삼위일체 같은 거 몰라도] 기독교 바깥의 정직성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거나, [삼위일체에 관한] 무지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무지라고 탄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이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고 있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해’¹⁴⁾ 주시기를 나는 바란다.”¹⁵⁾

2.2. 예정론: 예정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의 차원에서 피조세계의 창조와 섭리 및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사실에 대한 교리이다. 예정론은 존 웨슬리에 의하면 일상적 삶(common life)에 관한 예정과 구원에 관한 예정으로 나뉜다.

2.2.1. 일상적 삶에 관한 예정: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선택과 유기에 관한 영원한 법령(Decree)에 해당되지 않는 그 이외의 모든 인간사는 일상의 삶에 관한 예정에 속한다. 웨슬리에 의하면, 일상적 삶의 예정은 주권적 창조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예정이다. 다만 인간은 그 영혼에 이해력(understanding), 의지(will), 정서(affections), 자유(liberty, freedom of choice, the power of self-determination)를 부여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각인에게 영원 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한 그의 일상적 삶의 내용을 미리 알려 주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 안에서 이해력, 의지, 정서를 사용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

웨슬리의 가르침:

“하나님의 주권은 (1) 인류에 관련하여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법령을 영원부터 확정해 놓은 것에서 나타나며, (2) 창조의 전반적인 정황 안에서, 즉 만물을 창조하는 시간, 장소, 방식 안에서 나타나며, 가시적 및 불가시적 피조물들의 숫자와 종류들을 지정하시는 일에서 나타나며, (3) 사람들에게 자연적 기능들을,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기능들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기능들을 할당하는 데서 나타나

13) 요일 5:8.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14) 딤후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5) John Wesley, Sermon “On The Trinity”, 15-18.

며, (4) 모든 각 사람의 출생에 동반되는 시간 및 장소,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외적 상황들(부모, 친척 등)을 부여하는 데서 나타나며, (5) 하나님의 교회를 교화하기 위하여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분여하시는 데서 나타나며, (6) 모든 이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일들, 즉 건강, 재물, 친구들, 및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지정해 주시는 일들에서 나타난다.”¹⁶⁾

2.2.2. 구원에 관한 예정: 웨슬리에 의하면,

(1) 하나님은 주권적인 입법자로서 만세 전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불변의 절대적인 법령을 정하셨고, 오직 이 법령에 따라서 모든 인간을 각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믿음 또는 불신앙을 따라서 두 종류 즉, 믿고 구원받을 자(택자, Elect)와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할 자(불택자, Reprobate)로 만세 전에 결정하신다. 여기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각 인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구원 받을 자와 구원 받지 못할 자로 만세 전에 결정하는 것은 그 법령을 정한 입법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결정하는 것을 “조건적 선택”(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부르고, 구원 받지 못할 자를 결정하는 것을 “조건적 유기”(conditional reprobation)라고 부른다.

웨슬리의 가르침:

“선택(election, 택하심)이라는 것은 일부 사람들을 영원한 행복[=영생]을 받을 사람으로 지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이런 택하심은 그 반대인 유기와 마찬가지로 조건적(conditional)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두 가지[=택하심과 유기]에 관한 영원한 법령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 안에 표현되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saved),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damned).’ 이 법령은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 편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령에 따라서 성경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택자(elect)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계속 불신앙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한 계속 유기된 자들(reprobates)이라 하여,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요 성령의 하시는 일들에 관하여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라 하여 마땅한 것이다.”¹⁷⁾

(2) 이 두 가지,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만세 전에 미리 아는 것과 그것에 따라서 구원 받을 자와 구원 받지 못할 자로 결정하는 일이 만세 전에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지라는 것은 피조세계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한 눈에 그리고 한 순간에 모두 항시적인 현재로서 아는 것이다.¹⁸⁾

웨슬리의 가르침:

“하나님의 눈 앞에는 만사가 현재형으로 있으며, 하나님은 영원 그 자체도 한 눈에 그 전체를 보고 계시며, ‘있지 아니 한 것을 마치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즉 아직 있지 아

16) John Wesley,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53, in: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X, p. 204-259(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Original Edition, London, England, 1872).

17) Ibid. 17.

18) John Wesley, Sermon, “On Predestination”, 5; John Wesley,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18.

니 한 것을 마치도 지금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참된 믿는 자들을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택자’라고 부르신 것이다. 수 세대가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들은 아직 실제로는 택자들, 즉 믿는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택자’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들이 실제로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에 오직 그 때에 그들은 실제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 때에 그들은 실제로 ‘선택하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 즉 진리를 믿음으로써 택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다. 또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거룩케 하심을 통하여 택자가 되었다’라고 말한다.”¹⁹⁾

(3)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가 원인을 제공하여 각인의 선택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지도 무엇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이 먼저 있고나서 하나님은 아는 것이다. 각인이 먼저 믿는 것을 또는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한 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는 것이다.

웨슬리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죄 짓도록 어떤 방식으로든지 원인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한 순간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간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 순간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지 믿는 자 또는 믿지 않는 자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느냐 또는 믿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지식의 대상 그 자체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의하여 원인이 제공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²⁰⁾

(4) 그러나 각인이 믿는 것 또는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는 모든 것을 공시적으로 항시적인 현재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지에 있어서는 공시적으로는 시간적 선후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논리적으로는, 즉 각인이 먼저 선택한 후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식으로 논리적으로는 선후가 있는 것이므로, 각 개인은 자신의 자유 안에서 믿는 것 또는 믿지 않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 이것이 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공시적으로 알고 계신 각인의 선택 내용을 그 누구에게도 미리 알려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웨슬리의 가르침:

“인간은 믿느냐 또는 믿지 않느냐에 있어서, 마치도 하나님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자유롭다.”²¹⁾

(5) 그러므로 각인은 자신이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 선택할 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모르시는 듯이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만 한다. 여기서 인간의 선택의 자유는 온전히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예정과 인간의 자유는 상호 모순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상호 모순 없이 병존하는 구조 안에 있다.

19) John Wesley,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18.

20) John Wesley, Sermon “On Predestination”, 5.

21) Ibid. 5.

웨슬리의 가르침:

“하나님은 ... 미리 아심도 없고, 나중에 아심도 없다. ...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조성되었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이해력의 부족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신을 우리의 수용력에 맞게 낮추시고 인간의 어법에 따라서 그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 [하나님] 나는 네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알고, 뜻을 세우고, 일하고 하는 것이다.”²²⁾

(6) 만세 전에 하나님의 전지 안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은 영원한 법령의 성격을 가지므로 인간의 자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이것을 자신이 정하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영원한 법령과 상관없이 변경하지 않으신다. 구원받을 자도 구원받지 못할 자도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전지 안에서 결정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과정을 따라서 실제로 진행 된 후에 반드시 영생이나 영원한 멸망 둘 중의 어느 한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미리 알려 주시지 않기 때문에 각인은 자신의 자유 안에서 믿을 것인지 또는 믿지 않을 것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늘 선택해야 한다.

웨슬리의 가르침:

“1. 하나님은 모든 ‘현재 믿고 있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 2. 하나님은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3.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칭의하신다. 4. 그리고 그들을 성화하신다. 5. 그리고 그들을 영광으로 데리고 가신다.”²³⁾

3. 인간론

3.0. 인간론은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교리와 인간의 행위에 관한 교리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하나님의 형상’ 교리이고, 후자는 원죄론을 중심으로 하는 죄에 관한 교리이다.

3.1. 하나님의 형상 교리:

3.1.1.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 웨슬리에 의하면, 인간은 영(spirit), 혼(soul), 몸(body)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영과 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영을 가운데에 두고 혼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spirit/soul)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영/혼을 편의상 혼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웨슬리는 삼분법과 이분법이 모두 성경적이라고 본다.

웨슬리에 의하면, 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영(Spirit)이신즉 인간도 이것을 따라서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 영이 인간의 본질적 자아라는 뜻이다.²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지(understanding), 의(will), 정(affections)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도 지, 의,

22) Ibid. 15.

23) Ibid. 16.

24) 존 웨슬리, 설교 “인간이란 무엇인가?”(1788년), 10: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 나는 나의 몸과 구별된 무엇이다. ... 나의 몸이 죽을 때 나는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스스로 움직이는 사고하는 원리는 그의 모든 정욕들과 정서들을 다 가지고 계속 존재할 것임을 나는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정이라는 기능을 가졌다. 그리고 영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수동태라면, 비물질은 능동태라고 보아서, 영은 스스로 움직임의 원리를 가졌고, 따라서 자유(liberty, power of self-determination)의 속성을 가졌다. 그리고 이 영은 비물질적 소재로 되어 있어서 불멸한다.

웨슬리의 가르침: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했거니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원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죽지 않는 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모든 영들이 그렇듯이) 스스로 움직임(self-motion), 이해력(understanding), 의지(will), 그리고 자유(liberty)가 부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몸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모태에서 받아서, 그걸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며, 그걸 갖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구조물 형태를 갖춘 일정량의 물질이 아니겠는가? 현재에는 몸은 살과 피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살과 피는 몸이 아니다. 살과 피는 몸이 입고 있는 일시적인 옷일 뿐이다. 몸은 이 옷을 무덤에서 완전히 벗어버린다.

혼은 영과 혼 사이의 중간에 여하한 어떤 것이 없이 영과 혼이 직접 붙어 있는 형태로(immediate) 영이 입고 있는 옷인 것으로 보인다. 영이 처음 존재할 때부터 영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나 죽어 있을 때에나 영으로부터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그런 차량(vehicle)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혼은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순수한 물질인 정기적 또는 전기적 불(ethereal or electric fire)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혼은 몸의 죽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혼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몸 안에 있는 영을 담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몸과 분리된 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활 시에 혼이 죽지 않는 몸을 입을 때, 혼에 여하한 본질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²⁵⁾

웨슬리에 의하면, 자유(liberty)라는 것은 무엇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영혼 전체에 적용되는 속성이요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이고, 자유의지(free will)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전의 원래 의지의 상태를 의미하며, 또한 믿음에 의하여 회복된 의지의 상태, 즉 하나님의 의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의지의 상태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즉, 자유는 영혼 전체의, 따라서 영혼의 항시적 기능인 지, 의, 정의 본질적이며 항시적인 속성이고, 자유의지는 오직 의지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원죄 하의 영혼의 의지의 상태를 웨슬리는 ‘교만과 자기의지’라고 표현한다. 즉, 자유의지(free will)는 자기의지(self-will)의 반대말이다.

종교강령 25개 조항 제8조 ‘자유의지’(free will) 항목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상황이 그러하여[즉, 원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그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과 행위로써는 믿음으로 돌아와서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납하시는 선한 행위들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자유의지는 의지의 선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서 원죄 하에서는 이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다시 의지에 발생하며, 우리가 그 발생한

25) John Wesley, “Some Thoughts on An Expression of St. Paul, in The First Epistle to the Thessalonians, Chapter V., Verse 23”, in: *The Works of John Wesle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reprint), Vol. XI, p.447-448.

자유의지를 잘 유지할 때 그리스도의 함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선한 행위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자유의지의 진정한 의미의 발생과 유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심지어 선행은혜에 의한 자유의지의 일시적인 발생과 유지도,²⁶⁾ 웨슬리에 의하면, “이교도의 믿음”(the faith of a heathen)이 있을 때 가능하나, 이런 의미의 자유의지로써는 당연히 성경적 의미의 구원은 불가능하다.²⁷⁾

웨슬리의 가르침:

“나는 한 가지 속성을 더 스스로 의식한다. 그것은 보통 자유(*liberty*)라고 불리는 속성이다. 이것은 매우 자주 의지(the will)와 혼동된다. 그러나 이 자유는 매우 다른 본질의 것이다. 또한 이 자유는 의지의 속성이 아니라, 영혼의 독특한 속성이며, 몸의 모든 움직임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모든 기능들에 대하여도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는 스스로 결정하는 힘(a power of self-determination)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상상들에까지 다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많은 예외 없이, 우리의 말들과 행동들에 일반적으로 미친다. 내가 나의 존재를 확실히 의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런 자유를 확실히 의식한다.”²⁸⁾

3.1.2. 하나님의 형상의 각 기능의 역할:

(1) **이해력(understanding):** 아담의 타락 이전 이해력이 하는 일의 핵심은 직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었다.²⁹⁾ 그리고 일상적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 시점부터 이해력의 직관 능력은 사라지고 추론하는 능력, 즉 이성(reason)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상실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직관은 하나님의 조명이 있을 때만 회복된다. 예컨대 원죄 하에 있는 인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서 양심의 현상을 발생시키는 선행은혜의 역사 시에 영혼의 이해력에 일시적으로 직관이 발생하고, 의지는 그 순간 어느 정도 자유의지의 상태가 된다.³⁰⁾ 또는 하나님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발생시킬 때, 이해력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직관적 인식이 회복된다.³¹⁾

26) 존 웨슬리,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45: “그러나 나는 자유의지를 그 정도로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 ... 인류의 현재의 상태에 있어서 사람이 태어날 때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단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개개인을 조명하는 저 초자연적인 빛이 함께 하는 동안 모든 개개인에게 회복되는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27) 존 웨슬리, 설교 “믿음에 의한 구원”, I.1.

28) 존 웨슬리, 설교 “인간이란 무엇인가?”(1788년), 11.

29) John Wesley, 설교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III.1.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사람 안에서 그의 일을 시작하신다. 그는 우리의 이해력의 눈(the eyes of our understanding)을 열어 주시며 또한 빛을 비추신다. 어둠으로부터 빛이 비추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神)이 우리의 마음 위에 펼쳐 놓았던 베일을 걷어치우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때 일련의 추론(reasoning)으로써가 아니라, 일종의 직관(intuition)으로써, 즉 직접적으로 보는 것(a direct view)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들을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30) 존 웨슬리,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45.

31) 존 웨슬리, 설교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III.1: “그는[=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이해력의 눈을 열어 주시며, 또한 빛을 비추신다. ... 그러면 우리는 그 때 일련의 추론으로써가 아니라, 일종의 직관으로써, 즉 직접적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웨슬리의 가르침:

“아담은 그의 이해력이나 정서에 있어서 아무런 결함이 없이 피조되었다. 그 때는 그의 몸이 아직 그의 정신에 방해물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그의 정신이 만물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그 만물들에 관하여 사실대로 판단하고, 올바르게 추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만약 그 때 그가 추론을 했다면 말이다. ‘만약 그 때 그가 추론이란 것을 했다면’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는 그는 아마 그 때는 추론이란 것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범죄 후에] 가멸적이 된 그의 몸이 정신을 내리누르며 그 타고난 기능들을 손상시키기 전에는 그는 추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 때까지는 그의 정신은 제공된 모든 진리를 마치도 눈이 지금 빛을 직접적으로 보듯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았을 것이다.”³²⁾

이성은 일상적 삶에서의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는 추론을 통한 미미한 인식만을 가능하게 하여 구원을 위한 하나님 지식을 얻게 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특히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빛을 비추실 때에 이해력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직관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명료하고 확실한 지식을 얻게 된다. 이 지식이 곧 믿음이다. 믿음은 영혼의 기능 가운데 이해력에 하나님의 조명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명료하고도 확실한 지식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믿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자명한 인식과 확실한 깨달음”(divine evidence and conviction of God and things of God)이라고 정의한다.³³⁾ 믿음은 하나님이 영혼의 이해력에 빛을 비추어 발생시키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이다.

(2) 의지(will)와 정서(affections): 의지의 역할은 원래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하여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력으로부터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의지를 기뻐하고 좋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정서의 역할이다. 따라서 의지와 정서는 원래의 상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해력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거하여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 안에서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웨슬리의 가르침:

“이 내적인 원리는, 어디에 자리 잡고 있든지 간에, 사고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고, 증오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바라고, 두려워하고, 희망하고 하는 등의 능력도 있다. 그리고 보통 ‘정욕들’(passions) 또는 ‘정서들’(affections)이라 불리는 다른 내적 감정들 전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들을 일반적인 명명으로는 ‘의지’(the will)라고 부른다. 이들은 서로 혼합되기도 하고 수천 가지 방식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이 내가 ‘영혼’(the soul)이라고 부르는 그 내적 원리 안에서의 유일한 행동의 원천인 것 같다.”³⁴⁾

32) John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25, Q.1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Reprint from the edition 1872), Vol.XI, pp.366-446.

33) 존 웨슬리,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 II.1. “일반적인 의미의 믿음은 ... 보이지 않는, 시각으로나 또는 외적 감관 중 다른 무엇으로도 감지되지 않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자명한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확실한 깨달음(a divine evidence and conviction)’이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를 다 함축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들의 초자연적 자명성, 영혼에게 나타내지는 일종의 영적인 빛[즉, divine evidence]을 의미한다. 둘째로 그것은 초자연적으로 보는 것 또는 감지하는 것[즉, conviction]을 의미한다.”

34) 존 웨슬리, 설교 “인간이란 무엇인가?”(1788년), 7.

3.2. 죄론: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에 관한 교리는 죄론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태에 조성될 때부터 원죄 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론의 핵심은 원죄에 관한 교리이다.

3.2.1. 원죄의 정의: 종교강령 제7조에 의하면, “원죄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헛되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을 따라 행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각 인간의 본질이 부패한 것으로서, 이 부패에 의하여 인간은 원의(原義)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요, 그 자신의 본질에 의하여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본질은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영혼의 부패는, 웨슬리에 의하면, 이해력과 의지와 정서가 부패했다는 뜻이다. 이해력의 부패는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하지 못함으로 이해력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무신론의 상태에 있는 것이요, 의지의 부패는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하지 못함으로써 교만과 자기의지(self-will)의 상태에 있는 것이요, 정서는 하나님의 정서에 일치하지 못함으로써 세상사랑,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영혼의 전적부패 상태요, 거기서 나오는 악한 기질들의 상태이다. 따라서 이런 영혼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따라가지 못함으로 이를 영혼의 전적무능이라고 한다. 즉, 원죄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모태에서부터 전적부패와 전적무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웨슬리의 가르침:

(1) **이해력의 부패:** “우리는 나면서부터 본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사귄도 없었다. ... 우리의 타고나 기능들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이해력으로는 그를 감지할 수가 없다.”³⁵⁾

(2) **의지의 부패:**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의 상태에서는 철저한 우상숭배자이다. ... 우리는 하나님께만 마땅히 드려야 할 명예를 우리 자신에게 돌릴 때 우리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만이 우상숭배다. ... 그러나 교만만이 우리가 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바의 유일한 우상숭배가 아니다. 사단은 또한 자기의지(self-will)라는 형태로 우리 마음에 그 자신의 형상을 인쳐 놓았다.”³⁶⁾

(3) **정서의 부패:** “우리가 마귀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마귀의 발자취를 따라 간다. 그러나 다음 발걸음에서 우리는 사단을 뒤로하고, 사단에게 그 책임이 없는 또 하나의 우상숭배로 달려 들어간다. 세상사랑(love of the world)을 나는 의미하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 즉 모든 종류의 감각의 즐거움보다 더 나면서부터 본래적인 것이 있는가? ... ‘안목의 정욕’, 즉 상상의 즐거움을 욕망하는 것도 그러하다. ... 우리의 본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세상사랑이라는 이 불치병의 세 번째 증세는 ‘이생의 자랑’, 즉 칭찬을 바라는 것, 사람으로부터 오는 명예를 바라는 것이다.”³⁷⁾

4. 그리스도론

4.0. 그리스도론의 구조: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교리와 그리스도의 행위에 관한 교리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의 핵심은 양성론(칼케돈 신조)이고, 후자의 핵심은 속죄론이다.

35) 존 웨슬리, 설교 “원죄”, II.3.

36) Ibid.II.7-8.

37) Ibid.II. 9-11.

4.1. 양성론: 종교강령 25개 조항 제2조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심’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질이신 성자 하나님이 복되신 동정녀의 모태에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고, 그리하여 온전하고 완전한 두 본질,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서로 연합되었다. 이 두 본질은 결코 서로 나뉘지 않으며, 이 두 본질이 한 그리스도를 이루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이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진정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묻히셨고, 그리하여 인간들의 원죄의 죄책뿐만 아니라, 자범죄들을 위해서도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 조항에는 양성론 교리와 속죄론 교리가 정통적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조항은 칼케돈 신조를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칼케돈 신조를 또한 정통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칼케돈 신조: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일치된 가르침과 신앙고백은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다음과 같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또한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며, 진정으로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진 인간이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본질이시며,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모든 점에서 같으시다. 신성에 있어서는 만세 전에 성부로부터 출생하셨으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낳으신 자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시었다.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독생자이신 그는 두 본질을 갖고 계신즉, 이 두 본질은 서로 섞이지 않고($\alpha\sigma\upsilon\chi\acute{o}\tau\omega\varsigma$), 서로 변화되지 않고($\alpha\tau\acute{\rho}\epsilon\pi\tau\omega\varsigma$), 서로 단절되지 않고($\alpha\delta\iota\alpha\iota\rho\acute{\epsilon}\tau\omega\varsigma$), 서로 나뉘지 않는($\alpha\chi\omega\rho\acute{\iota}\sigma\tau\omega\varsigma$) 상태로 인식되신다. 이 두 본질은 통일을 이루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서로 다름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각각의 본질의 고유성이 그대로 보존되며, 그러면서도 한 인격과 한 개체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서 두 인격들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으신다. 그러하신즉 예로부터 선지자들이 이미 그에 대하여 선포했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대로, 교부들의 신앙고백이 우리에게 전승한 그대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 로고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칼케돈 신조는 주로 양성론 교리를 표현하고 있으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표현 속에는 속죄론 교리가 암시되어 있다. 즉, 양성론 교리는 속죄론 교리의 근거이다. 양성론 교리가 올바르면 그것에 근거한 속죄론 교리도 올바를 수 있으나, 양성론 교리가 올바르지 않으면, 속죄론 교리도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칼케돈 신조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각각의 고유한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한 인격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졌지만 두 개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고, 하나의 인격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으로 두 개의 본질인 것이다. 이 두 개의 본질은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본질은 (1) 서로 섞여서 혼합된 상태가 아니라,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각각의 고유한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고, (2) 서로 영향을 주어서 신성이나 인성이나 그 속성에 변화 내지 변질이 온 상태가 아니고, (3) 또는 그 반대로 신성과 인성 두 본질이 한 인격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분리되어 상호 단절 상태에서 각

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상태에서 상호 교류 가운데 있으며, (4) 신성과 인성 두 본질이 서로 분할되고 분리되어서 각 본질은 각 인격을 이루어서 두 인격이 한 몸 안에 상호 병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1)번의 규칙을 어긴 경우: 신성과 인성은 상호 혼합되어서 신성 또는 인성의 고유한 형태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긴 것이 아폴리나리우스주의(Apollinarianism)이다. 아폴리나리우스(Apollinarius)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몸은 인성에 속한 것이지만, 그의 영은 신성의 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성의 고유한 형태인 영과 혼과 몸의 구조가 손상된 것이다. 신성은 온전하지만, 인성이 온전하지 못하므로,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는 참 인간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 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질이신 신적 존재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그의 인성을 가급적 약화시켜서, 그는 천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가현적인 것이라고 보는 경우다. 이단사이비 교주의 경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면서 자신을 천상적인 존재로 여길 때, 그의 기독교론은 이런 종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②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자신인데 성자의 양태로서 나타난 존재라고 보는 경우, 이는 삼위일체론에 있어서는 양태론적 오류이고, 그리스도론에 있어서는 아폴리나리우스적 오류이다. ③ 한 하나님이 시대경륜을 따라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주장도 양태론적 오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론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간과하므로 칼케돈 신조를 어기는 오류이다.

(2)번의 규칙을 어긴 경우: 신성과 인성은 상호 영향을 주어서 신성이나 인성에 변질이 온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긴 경우가 유티케스주의(Eutychianism)이다. 유티케스(Eutyches)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할 때, 인성이 신성으로 흡수되어 병합됨으로써 이 두 본질이 상호 변화되어 제 3의 본질로 통합된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했다. 이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본질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는 참 인간이 아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일종의 초인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기적을 행한 것은 초인간의 초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혼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3)번의 규칙을 어긴 경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각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되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서, 본질적인 차원의 상호 교류가 단절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긴 것이 네스토리우스주의(Nestorianism)이다. 네스토리우스(Nestorius)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신성을 가졌지만 또한 온전한 인성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본질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졌지만, 적어도 마리아로부터 출생할 때에는 신성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인성의 존재로서 태어난 것으로 보았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이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연합을 이룬다는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이 두 본질은 하나의 인격 안에서 도덕적 차원에서의 통일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도덕적 차원의 통일은 인성적 차원의 통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결국 공허한 말로만 남고, 그 실체성은 희미하게 된다. 신학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 인물이나 도덕적 교사로 보는 관점들, 또는 현대신학에 있어서 소위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신학들이 이런 류의 오류를 범한다. 또한 사회적 및 정치적 행동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범으로 보는 신학들도 이런 오류를 범한다. 또는 예수를 우리와 같은 인성적 본질을 가진 그러나 모

범적인 종교인으로 보아서 초월적인 종교 수련을 통하여 신적 경지에까지 도달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도 삼위일체론에 있어서는 양자론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론에 있어서는 네스토리우스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오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이러저러한 사상들을 통하여 상상의 존재를 그려내게 된다.

(4) 네스토리우스주의가 극단화되면 또한 (4)번의 규칙을 어기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각각 독립되어 활동하면 이 두 본질은 각각의 인격을 형성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신성과 인성은 상호 분할되고 분리되어 각각 인격을 형성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의 몸 안에서 두 인격이 상호 병립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칼케돈 신조를 어기게 된다. 예컨대 다중인격적 이단사이비 교주의 경우에서 이런 종류의 오류를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소위 종교적 인물이 자신을 종교적 분야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인격처럼 연출하고,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재현하는 존재라고 강변한다면, 그는 자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네스토리우스적 오류를 극단화함으로써 자신의 병든 인격과 비행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웨슬리의 그리스도론은 칼케돈 신조에 일치하는 양성론과 속죄론을 가르친다. 그는 특별히 양성론과 속죄론을 상호 인과관계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먼저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성과 진정한 인성을 한 인격 안에 통일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웨슬리의 가르침:

“1. 그의 신성적 의는 그의 신성적 본질에 속한다. 그는 신성적 본질에 있어서 만물 위에 존재하는 분이요,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이다.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비하여 열등하시나, 그의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지고하시며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그의 신성적 의라는 것은 그의 영원하고 본질적이며 불변하는 거룩성이다. 그리고 그의 무한한 공의와 자비와 진리가 그의 신성적 의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다.’
2. 그리스도의 인성적 의는 그의 인성적 본질 안에서 그에게 속한다. 그는 인성적 본질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 인성적 의는 내적 의와 외적 의로 나뉜다. 그의 내적 의는 그의 영혼(his soul)의 모든 능력과 기능에 인쳐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내적 의는 그의 신성적 의가 인간의 영(human spirit)에 분여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그의 신성적 의의 모사이다.”³⁸⁾

웨슬리에 의하면, 위의 인용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적 본질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서는 영과 혼과 몸을 갖고 있다. 그는 인성에 있어서는 참 인간이다. 그런데 그의 인간으로서의 영은 그 자신의 신성의 차원에서의 의가, 인간의 영이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충만하게 복사되어 이루어진 의와 진정한 거룩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상태이다. 즉,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영의 상태, 웨슬리의 용어로는, 완전한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성과 인성의 상호 인과관계 안에서의 긴밀한 상호 교류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1) 신성과 인성은 상호 혼합되어 신성의 영이 인간의 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영은 자신의 의를 인성의

38) 존 웨슬리, 설교 “主, 우리의 의”, 1.1-2.

영에게, 인간의 영이 받을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충만하게 복사해 줌으로써, 신성의 영도 완전하게 있고, 인성의 영도 완전한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로서 온전히 보존된다. 그리고 여기서 신성과 인성은 긴밀한 교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인격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인성의 영혼의 지, 의, 정이 신성의 영의 지, 의, 정에 완전히 일치하여 교류하는 상태에서 통일된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폴리나리우스(Apollinarius)의 오류를 피하게 된다. (2) 또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이렇게 연합하여 통일을 이룰 때,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는 방식의 연합이 아니라, 신성의 의가 인성의 영에 복사되는 방식의 연합이므로, 신성과 인성에 모두 본질에서의 변화가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티케스(Eutyches)의 오류를 피하게 된다. (3) 또한 웨슬리의 이러한 이해는 네스토리우스(Νεστόριος)의 오류를 차단하고 있다. 즉, 신성과 인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므로 본질에서의 연합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의 연합이 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출발하여 종교적 수련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는 도덕적 인품과 행위에 있어서 초인적으로 탁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히려 신성의 의가, 즉 신성의 본질이, 인성의 영에 그 한계 내에서 충만하게 복사됨으로 인하여 본질적 차원의 연합을 통하여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음을 명료하게 말하고 있다. (4) 또한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를 극단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각각 독립된 인격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병립된 인격을 가진 다중인격적 존재로 생각하는 오류를 웨슬리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질이 신성(신적 Spirit)의 의를 인성의 영혼(spirit/soul)에 복사하여 완전한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연합하므로, 두 본질이 각각의 본질을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이룬 존재(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닮은 인성적 영혼)라고 웨슬리는 생각하였다. 이렇게 하여 웨슬리는 칼케돈(Chalcedon) 신조에 완전히 일치하는 그리스도론을 가르쳤다.

4.2. 속죄론

4.2.0. 속죄론의 정의: 속죄론은 그리스도론의 두 번째 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교리이다. 죄인인 인간을 죄의 세력(죄짓게 하는 존재의 지배하는 능력)과 자신의 자범죄의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고 거룩하게 살다가 마지막 심판 시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義)를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성 차원에서의 내적 의(영혼의 완전한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의 의)와 행함과 당함으로 구성된 외적 의(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 의 및 의를 행하는 적극적 의로 구성된 능동적 의와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수동적 의)를 이루어내는 행위에 대한 교리이다.

4.2.1. 그리스도의 의(義):

(1) **그리스도의 신성 의와 인성의 내적 의:** 속죄론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웨슬리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의는 신성적 의와 인성적 의로 구성된다. 그리스도의 신성적 의는 “그의 영원하고 본질적이며 불변하는 거룩성이며, 그의 무한한 공의와 자비와 진리가 그의 신성적 의이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다.”³⁹⁾ 그리고 이 신성적 의가 그리

스도의 인성적 의의 원인이 된다. 그의 신성의 의가 그의 인성의 영혼에 인간의 영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충만하게 복사됨으로써 그의 영혼은 완전한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가 된다. 그리하여 그의 영혼의 이해력은 성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게 인식하며, 그의 영혼의 의지는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히 일치하며, 그의 영혼의 정서는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를 완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이 상태에 흠이 없이 순결하다.

웨슬리의 가르침:

“그의 인성적 의는 내적 의와 외적 의로 나뉜다. 그의 내적 의는 그의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에 인쳐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내적 의는 그의 신성적 의가 인간의 영에 분여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그의 신성적 의의 복사(a copy of his divine righteousness)이다. 이 내적 의는 신성적 순결함, 신성적 공의와 자비와 진리이다. 이 내적 의는 그의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경외와 순종을,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친절함, 그리고 타락한 인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른 모든 거룩하고 천상적인 기질을 가장 높은 정도의 상태로 어떤 흠이나 거룩하지 않은 것과의 혼합 없는 상태로 포함한다.”⁴⁰⁾

(2) 그리스도의 인성의 의 가운데 외적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내적 의는 외적 의의 원인이 된다. 그의 영혼의 완전한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은 그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 완전하게 열납되는 완전한 외적 의를 생산하게 한다. 그의 외적 의는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로 구성된다. 능동적 의는 적극적 의(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함의 의)와 소극적 의(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지 않음의 의)로 구성되고, 수동적 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함으로써 구성된다.

웨슬리의 가르침:

“그리스도가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외적 의의 가장 작은 부분이었다. ... 이 정도라도 그리스도 그 자신을 제외하고는 여인으로부터 난 누구에게도 결코 속해 본 일이 없으며 속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단지 소극적인 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외적 의조차도 적극적인 면 또한 있었다. ... 그가 행하는 행동들이 다 그를 보내신 분의 뜻을 정확히 행하는 것이었다. ... 그의 순종은 전체적으로도 완전했고, 각 부분마다 완전했다. ... 그의 의는 행하는 것만아 아니라, 또한 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그가 이 세상에 들어온 때부터 나무 위에서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다 담당하신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속죄를 완전히 이루신 다음에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 전체를 온전히 감수하신 일을 포함한다. 이것을 통상 그리스도의 수동적 의라고 부른다.”⁴¹⁾

(3)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imputation)와 이식(implantation): 죄인에게 적용되어 그를 죄책으로부터 용서 받게 하고, 그의 영혼에 이식되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는 그의 인성적 의 가운데 외적 의(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외적 의는 완전한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 상태의 내적 의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죄 하의 인간은 누구도 이 내적 의는 물론 외적 의도 스스로 생산하여 하나님께 인정

39) 존 웨슬리, 설교 “主, 우리의 의”, 1.1.

40) Ibid., 1.2.

41) Ibid., 1, 3-4.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롬 3:20),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신 그 의를 믿음 이 있는 죄인에게 전가하여 죄책을 용서하시며, 그 의를 그의 영혼에 이식하여 의롭고 거룩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웨슬리는 전자를 사법적 이신칭의로서 관계적 변화(relative change)라고 부르고, 후자를 신생이라는 성화의 시작으로 실제적 변화(real change)라고 부른다.

웨슬리의 가르침:

(1) **이신칭의 받을 시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는 실제로는 결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때나 심지어 생각할 때에도 이 둘을 전혀 서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서로 결합한 상태에서의 이 두 가지 의에 관련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⁴²⁾

(2) **이신칭의 받을 시 영혼에 이식되는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의 열매로서의 내재적 의를 나는 믿는다. 전가된 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가된 의에 뒤따르는 결과로서의 내재적 의를 나는 믿는다. 즉, 나는 하나님이 의를 전가하신(has imputed)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식하신다(implants)고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의가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화가 되셨다고 나는 믿는다. 즉,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칭의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화하신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의롭게 만들어진다. 즉,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들이 그 안에서 피조된 바 그 모양을 따라 의와 진정한 거룩으로 새로워진다.”⁴³⁾

(4) **그리스도의 의의 분량이 아니라 이식인 이유:** 이신칭의 받을 시 그리스도의 의가 이신칭의 받는 사람의 영혼에 이식된다는 것은 그 영혼이 그 순간에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거듭난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가 이식되는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이 그 영혼에 통치자로 임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영혼이 되는 것이다(갈 2:20).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의 이식은 소위 그리스도의 의의 분량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분량은 그리스도의 의를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일부를 내 속으로 넣어준다는 개념으로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화체설적 성만찬의 개념과 유사하다. 화체설을 거부하는 개신교의 개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5. 구원론

5.0. **구원론의 정의:** 구원론은 성부 하나님이 믿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하여(즉, 전가하고 이식하여) 그 죄인의 영혼에 이신칭의와 신생, 성화를 발생시켜서 그의 영혼과 삶이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하시는 방법과 순서에 관한 교리이다. 이 구원의 과정은 영화로써 완성되는데,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 물질 세상이 폐지되고, 비물질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마지막 심판의 결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론에서 다루지 않고 종말론에서 다룬다. 구원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긴 과정을 통하여 점진

42) Ibid., I,4.

43) Ibid., II,12.

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원의 교리는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설명된다. 웨슬리도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구원의 이치를 설명하였다. 우리도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구원의 교리를 규정할 것이다.

5.1. 구원의 순서

5.1.1. 선행은혜

(1) 웨슬리에 의하면, 사람들이 보통 ‘자연적 양심’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에 선행은혜로써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릇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소원을 갖고 “의롭게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히 걸어가라”(미 6:8)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일시적으로나마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고 선한 양심이나 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양심의 가책이나 선한 양심을 느낄 때마다 그 양심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더 많은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를 그 다음의 은혜인 회개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선행은혜를 통해 양심의 현상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성부 하나님이 그 당사자를 성자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 성자는 그 사람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성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근본 명령인 ‘정의, 자비, 진리’를 행하라(미 6:8)는 것을 희미하게 일시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 당사자는 이 양심의 현상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자신의 자유 안에서 선택하게 된다.

웨슬리의 가르침:

“우리가 이 구원을 그 최대범위로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구원은 보통 ‘자연적 양심’이라고 표현하나 보다 적절하게는 ‘선행은혜’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에 의하여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일 모두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즉,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들**⁴⁴⁾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소원들, 만약 우리가 이 소원들에게 양보하듯이 따라가면,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런 소원들; **하나님의 아들이** 각 사람에게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너의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⁴⁵⁾을 보이시면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어 일깨우시는 그 빛’⁴⁶⁾ 전부; **그의 영이** 때때로 모든 각 개인 안에서 역사하여 일으키는 뉘우침들 전부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뉘우침들을 가능한 한 빨리 질식시키며, 한 동안 후에는 잊어버리며, 또는 기껏해야 그런 뉘우침들을 가졌던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⁴⁷⁾

(2) 선행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것이다. 양심의 현상이 아주 없는 인간이 없다는 사실이 이것을 말해 준다. 그 이유는 선행은혜는 인간이 요청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

44)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 미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46) 요 1:9.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47) 존 웨슬리,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 1,2.

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행은혜를 주실 때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양심의 현상이 발생하나, 양심 발생 후에는 그 양심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있으므로 그 때 선행은혜는 가항력적이다. 양심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더욱 주시지만, 양심에 복종하지 않으면, 은혜 주시기를 중단하시며, 주신 은혜도 거두어 가신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를 사용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이다.

웨슬리의 가르침:

(1) 선행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나, 인간의 반응에 있어서는 가항력적이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자연 상태에서는 죽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단지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 어떤 인간도, 만약 그가 성령을 꺼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 어떤 누구도 일반적으로 ‘자연적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적절하게는 ‘선행하는 은혜’(preventing grace)라고 부르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이것을 다소간에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요청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모든 인간은 더 일찍 또는 더 늦게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선한 욕망을 갖는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선한 욕망들이 뿌리를 내리거나 꺾을 만한 결실을 생산하기 전에 억눌러서 질식시켜버리는 것이 사실이다. ...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를 사용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이다.”⁴⁸⁾

(2) 선행은혜에 순응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나, 거부하면 은혜 주심을 중단하고, 주신 은혜도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변함없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 시행된다: ‘가진 자에게는 더하여 주실 것이요, 가지지 않은 자로부터는’, 즉 이미 주어진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 자로부터는, ‘그가 분명히 가졌던 것조차 취하여 빼앗아 가실 것이다.’”⁴⁹⁾

5.1.2. 회개은혜

선행은혜에 순응을 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실 때 회개은혜를 주신다. 회개은혜는 그 사람에게 (십계명을 핵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시며,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영혼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전적무능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하며, 그로 인하여 그의 외적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런 내적 죄와 외적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죄책을 부과해 놓으신 바, 이 죄책은 영원한 멸망(영원한 죽음, 영벌)으로써 갚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런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열납하시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며, 따라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며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행동하게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믿음을 통하여 죄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심을 받기를 열망하여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게 한다.

48) 존 웨슬리,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 III,4.

49) Ibid., III,7.

웹슬리의 가르침:

(1) 영혼의 전적 부패에 관한 깨달음: “첫째로 회개하라. 즉, 너희 자신을 알라. 이것이 믿음에 앞서 있는 첫 번째 회개요,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 즉 자기인식이다. ... 너의 가장 깊은 본성이 이렇게 부패한 것을 알라. ... 네 영혼의 모든 기능에 있어서 부패했고, 이 모든 것들의 개개마다 전적으로 부패한 것을 알라. 너의 이해력의 눈은 어두워졌으며, 그 눈으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할 수 없다. ... 너의 의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너의 의지는 ... 모든 선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모든 악을 지향하며,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모든 혐오스러운 것을 좋아하며 지향한다. 너의 정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구상의 모든 대상을 향해 흠어져있다.”⁵⁰⁾

(2) 영혼의 전적 무능에 관한 깨달음: “너의 마음의 타고난 그 부패성, ... 그 뿌리로부터 불신앙이 자라나온다. ... 여기서 독립이라는 가지가 자라나온다. 이 독립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여기서부터 교만이 자라나온다. ... 이 악한 샘으로부터 허영, 칭찬을 듣고 싶어 못 견디는 마음, 야심, 탐심, 욕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쓴물이 흘러나온다. 이것에서부터 화, 증오, 원한, 복수심, 시기, 질투, 악한 억측들이 나온다. 이것에서부터 모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들이 나오는데, 이 정욕들은 이생에서는 많은 슬픔으로 너를 빠져리게 하며, ... 급기야는 ‘너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던져 넣을 것이다.’⁵¹⁾

(3) 외적 죄에 대한 깨달음: “교만에서는 언쟁, 되지 못한 호언장담, 사람의 칭찬을 구하며 받으며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줄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강탈하는 것이 자라나온다. 욕신의 정욕으로부터는 탐식 또는 술취하기, 사치 또는 육체적 쾌감의 추구, 혼외정사, 불결, 성령의 성전으로 쓰시고자 의도하신 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럽히기가 자라나온다.”⁵²⁾

(4)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정죄, 죄책, 처벌에 대한 깨달음: “그러나 시간이 다 되면, 너는 이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진노를 자극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슬프게 한 너의 모든 허튼 말들에 대하여 너는 결산해야 할 것이다. 내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 그 자체로서 전적으로 악한 행동들이나 또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너는 결산해야 할 것이다.”

(5)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너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네가 정당하게 선고받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아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지금 이 시간부터 네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때까지 완벽하고 중단 없이 순종을 잘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으로써는 과거의 죄를 속죄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런데 너는 어떻게 너의 삶 전체를 전적인 악에서부터 전적인 선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 너는 완전히 무능하다. 네가 얼마나 죄책이 있으며,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가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후회할 것이 없는 [철저한] 회개’이다”⁵³⁾

50) 존 웹슬리, 설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II,1.

51) Ibid., II,2.

52) Ibid., II,3.

(6) 이 죄책과 무능함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깨달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구하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너의 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 이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진지한 염원을 가지며, 악을 중단하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는 것을 첨가한다면, ...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 그러면 이제 복음을 믿어라.”⁵⁴⁾

5.1.3. 칭의은혜

(1) 칭의은혜를 받는 방법과 그 효과: 회개은혜에 잘 순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칭의은혜를 주신다. 칭의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 그의 죄책을 용서하시고(이신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며(용납),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나의 영혼에 알려 주시며(성령의 증언), 그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므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며(신생), 이때로부터 그의 영혼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과정(성화)을 시작하게 된다.

(2) 종교강령 25개 조항 제9조 ‘사람을 의롭다 칭하심’은 그리스도의 속죄공로에 근거하여 죄인의 행함 없이 오직 죄인의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함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이 공로 때문에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건전한 교리이며, 큰 위로가 되는 교리이다.”

웨슬리의 가르침:

(1) 칭의은혜 때 주시는 믿음을 구하는 방법: “현재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 이 두 가지가 모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바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시어 생기게 하시기를 만약 네가 이미 주어진 은혜에 의하여 열망한다면, 뱀을 보고 도망가듯이 모든 죄로부터 도망가라. 모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피하라. 악의 모양이라도 피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라. 선행을 열심을 다해 행하라. 즉,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를 열심을 다해 행하라. ... 시간이 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과 몸에 대하여 선을 행하라.”⁵⁵⁾

(2) 칭의은혜 때 주시는 믿음의 내용: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시며 우리의 생명이라고, 즉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셨고 또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이라고 여겨 이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바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따라서 바로 내가 하나님께 화해되어 하나님의 총애의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확신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내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

53) Ibid., II,5-6.

54) Ibid., II,7.

55) 존 웨슬리,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관하여”, II,4.

함’, 즉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신 그분에게 달라붙어서 굳게 결합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⁵⁶⁾

(3) 칭의은혜 때 믿음을 주시는 방식: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 그는 우리의 이해력의 눈을 열어 주시며 빛을 비추신다. 어둠으로부터 빛이 비추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 위에 펼쳐 놓았던 베일을 걷어치우신다. 그러면 그 때 우리는 일련의 추론으로써가 아니라, 일종의 직관으로써, 즉 직접적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즉’, 그 죄들을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⁵⁷⁾

(4) 칭의은혜를 통한 이신칭의의 내용과 열매: “칭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평이한 성경적 견해는 용서, 즉 죄들을 간과하심이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이루어진바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일 때문에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또는 자비)를 보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행위이다. ...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또는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 어느 때인가 정죄하기 위해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 그의 죄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모든 그의 과거의 죄들이 ‘가리움을 받은 것’이요, 말소된 것이다. ...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그가 당해야 마땅한 고통을 가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열납된다. ... 하나님께서는 마치도 우리가 결코 죄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⁵⁸⁾

(3) 성령의 증언과 신생: 칭의은혜를 통하여 이신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성령은 그 사람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신다(롬 8:16). 이 증언을 통하여 그 사람은 자신이 이신칭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됨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거듭남이며, 웨슬리의 용어로는 신생(New Birth)이다. 이와 같이 이신칭의와 신생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이신칭의가 먼저 있고, 그런 후에 신생이 있는 것이다.⁵⁹⁾ 이신칭의는 하나님이 죄인의 죄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의 법적인 변화이고, 신생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실제로 변화되는 사건이다.

56) 존 웨슬리, 설교 “믿음에 의한 구원”, I.5. “Christian faith is then, not only an assent to the whole gospel of Christ, but also a full reliance on the blood of Christ; a trust in the merits of hi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a recumbency upon him as our atonement and our life, as given for us, and living in us; and, in consequence hereof, a closing with him, and cleaving to him, as our “wisdom, righteousness,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or, in one word, our salvation.”

57) 존 웨슬리, 설교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III.1.

58) 존 웨슬리,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 II.5.

59) 존 웨슬리, 설교 “신생”, 1. “시간의 순서에 있어서 이 둘[칭의와 신생]은 서로 간에 선후가 없다.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고의 순서에 있어서는 칭의가 신생 앞에 온다. 즉,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한다.”

웨슬리의 가르침:

(1) **성령의 증언**: “성령의 증언이란 영혼에 임하는 일종의 내적 느낌(an inward impression)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왔다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을 나를 위하여 내주었다는 것, 나의 모든 죄들이 지워졌다는 것, 내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화해되었다는 것을 나의 영에게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다.”⁶⁰⁾

(2) **성령의 증언을 알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성령이 그 내용을 증언할 때 여하한 외적 음성으로써 증언하는 것을 나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때로는 성령이 내적 음성으로 증언할 때도 있지만 항상 내적 음성으로 증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나는 ... 성경의 한 구절 또는 여러 구절을 가슴 안에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증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령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성령은 그의 즉각적인 영향력으로써 그리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활동으로써 영혼에 역사하여, 태풍과 격랑이 가라앉고, 기분 좋은 고요가 있으며, 가슴은 예수의 팔에 안식하는 것 같으며,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그의 모든 죄가 용서하심을 받고 그의 죄들이 덮어주심을 받아서 의심 한 점 없이 만족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⁶¹⁾

(3) **성령의 증언이 영혼의 실제적 변화(신생)의 원인인 이유**: “이 하나님의 영의 증언은 이치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의 증언에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 하나만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우리가 가슴에 있어서 거룩하며 삶에 있어서 거룩하다는 것을 의식하며,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룩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영의 증언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는 가슴에 있어서 거룩해져 있어야 하며, 삶에 있어서 거룩해져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거룩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의 영에 증언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의 증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모든 거룩에 대한 우리의 내적 의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모든 거룩에 대한 우리의 영의 증언에 앞서 있어야 한다.”⁶²⁾

5.1.4. 성화은혜

(1) **점진적 성화**: 칭의은혜를 통하여 이신칭의와 신생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신생한 사람의 영혼은 원죄의 상태(영혼의 기능들의 전적부패와 전적 무능)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영혼이 완전히 성화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부패성과 어느 정도의 무능이 남아 있다. 이것을 웨슬리는 남아 있는 죄(remaining sin)라고 부른다. 즉, 영혼의 이해력에 어느 정도의 불신앙이 남아 있고, 의지에 어느 정도의 교만과 자기의지가 남아 있고, 정서에 어느 정도의 세상사랑(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남아 있다. 이런 영혼의 악한 기질들은 죄의 존재(being of sin)인 마귀의 유혹에 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하는 바, 믿음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이기면 외적 죄를 짓지 않으나, 이기지 못하면

60) 존 웨슬리, 설교 “성령의 증언(I)”, 1.7.

61) 존 웨슬리, 설교 “성령의 증언(II)”, II.4.

62) 존 웨슬리, 설교 “성령의 증언(I)”, 1.8.

외적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은 영혼에 남아 있는 어느 정도의 부패성과 어느 정도의 무능에 대항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성령의 증언과 우리 자신의 영의 증언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는 자의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성화의 믿음’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다.

(2) 순간적 성화: 점진적 성화의 과정 중에 때때로 순간적 성화가 있을 수 있다. 순간적 성화는 영혼에 남아 있는 부패성과 무능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화의 믿음에 의하여 한 순간에 뿌리 뽑히듯이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영혼의 이해력은 완전한 믿음의 상태가 되고, 의지는 완전한 겸손과 순종의 상태가 되고, 정서는 완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영혼의 이런 상태를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 앞에도 점진적 성화가 있고, 그 뒤에도 점진적 성화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한 번 받으면 그 후로 계속 되는 경우는 드물고, 상실하기도 하며, 그 후로 다시 받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시겠다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의 수단을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사용하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간구하라는 명령이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순간에 완전성화를 발생시키는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을 받는 순간에 영혼은 그 믿음에 의하여 남아 있는 부패성이 뿌리째 뽑혀 사라지고,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겸손 및 순종과 완전한 하나님 사랑 및 이웃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웨슬리의 가르침:

(1) 신생한 사람에게 남아 있는 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안에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not reign), 여전히 남아 있다(still remain)는 사실을 인정했다. ... 여기서 죄라는 것은 내적 죄를 의미하는 뜻으로 쓴다. 즉, 여하한 죄된 기질, 정욕(passion), 또는 정서(affection)를 의미한다. 즉, 어떤 종류든지 또는 어느 정도든지 교만, 자기의지, 세상사랑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탐욕, 혈기, 불평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과 반대되는 여하한 성향을 의미한다.”⁶³⁾

(2) 신생한 자 안에 남아 있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그 사람 안에 계신다: “물론 그리스도는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통치하실 수 없다. 또한 어떠한 죄라도 허용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는 거주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믿는 자라면 예외 없이 그의 마음 안에 계시며 거주하신다. 물론 그 마음이 아직은 ‘성소의 성결에 준하여 성결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계시며 거주하신다.”⁶⁴⁾

(3) 믿는 자의 회개: [0] **믿는 자의 회개의 정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죄인이요, 죄책을 가졌으며, 여기서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남아 있는 내적 죄에 대한 인식:**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내면에서 죄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죄는 지배하지는 않지만, 남아 있다. 우리의 마

63) 존 웨슬리, 설교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 I, 6-II, 2.

64) Ibid., III, 8.

음에 남아 있는 이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회개의 큰 가지 가운데 하나다. ... [2] **남아 있는 외적 죄에 대한 인식**: 우리는 죄가 마음에 남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죄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3] **외적 태만의 죄에 대한 인식**: 또한 얼마나 많은 태만의 죄들(sins of omission)로 그들은 고발되어 마땅한가? 우리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라는 사도의 말씀을 안다. ... [4] **내적 부족함에 대한 인식**: 이러한 외적 태만 이외에도 그들 자신 안에 내적 부족함들을 수도 없이 발견하지 않는가? 그런 부족함들은 종류가 다양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사랑과 두려움과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이웃, 즉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 [5] **죄책에 대한 인식**: 그들의 죄책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하는 회개의 또 하나의 가지다. ... 그들은 지금 그들이 믿기 전보다 더 낮게 하나님의 엄격한 의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 엄격한 의는 앞에 서술한 그런 그들의 죄의 상태를 이유로 그들을 여전히 죽음에 처해 마땅한 자로 선언한다. ...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그것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한 대언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⁶⁵⁾ 그 대언자의 생애와 죽음과 중재하심이 여전히 그들과 정죄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다. [6] **완전한 무능에 대한 인식**: 그들의 완전한 무력함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이 회개의 또 다른 가지이다. ... 그들은 칭의를 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들 자신으로부터는 선한 생각 하나라도 낼 수 없고, 선한 의욕 한 가지라도 형성할 수 없으며, 선한 말 한 가지라도 말할 수 없으며, 선한 행위 하나라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으로부터는 여전히 어떤 종류가 되었든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었든 간에 ... 선을 행하거나 또는 악에 저항하는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과 마귀와 그들 자신의 악한 본성을 정복하거나 또는 저항하는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들은 이 일들을 모두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 이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 매 순간마다 선물을 받는 것이다. [7] **영혼의 어느 정도 부패성과 어느 정도 무능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무능에 대한 인식**: 우리의 자연적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도 우리는 ... 심지어 중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남아 있는 교만과 자기의지와 세상사랑과 분노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제거할 수 없는 무능력을 나는 말하는 것이다. ...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달라붙어 있는 악을 제거할 수 없는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태만의 죄들을 피할 수 없는 무능, ... 수많은 부족한 점들, 특히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랑과 다른 올바른 기질들의 결핍을 스스로 메울 수 없는 무능을 의미한다.”⁶⁶⁾

(4) **점진적 성화의 기본 원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이 모든 세부적인 일들에 있어서 전적인 변화가 있다. ... 신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느낀다. 즉, 내적으로 감지한다. 그는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⁶⁷⁾를 느낀다. 즉, 의식한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 찬’⁶⁸⁾

65) 요일 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66) 존 웨슬리, 설교 “믿는 자들의 회개”, 1,1-20.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여러 차례 느낀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성령으로써 그의 마음에 물 붓듯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⁶⁹⁾을 느낀다. 그리고 그의 모든 영적 감각들이 이제 훈련을 받아 영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⁷⁰⁾ 그는 이 영적 감각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또한 그의 내적 나라에 관한 모든 일들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매일 자라난다. ... 그는 지금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었던’⁷¹⁾ 그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하자면, 그의 영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그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쉰다. 은혜가 그의 마음에 강림하며, 기도와 찬양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간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러한 교통을 통하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유지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정도’⁷²⁾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⁷³⁾

(5) 점진적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증언: “성경은 성령의 증언에 동반되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기쁨은 겸손한 기쁨이요, 먼지까지 낮아지게 하는 기쁨이다. 이 기쁨은 용서 받은 죄인으로 하여금 ‘나는 미천합니다 ... 이제 내 눈이 주님을 뵈오니 내가 내 자신을 먼지와 재 가운데서 혐오합니다!’⁷⁴⁾라고 외치게 한다. 낮아짐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온유와 인내와 관대함과 오래 참음이 있다. 거기에는 부드럽고 양보하는 정신, 순하고 다정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부드러움이 있다.”⁷⁵⁾ “하나님이 너의 영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열매들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증언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너는 내가 망상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즉 내가 네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가슴 안에서 다스리시는 성령의 직접적인 열매들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⁷⁶⁾, ‘동정심, 마음의 겸손함, 온유함, 관대함, 오래 참음’⁷⁷⁾이다. 그리고 외적인 열매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행치 않는 것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순종하는 것이다.”⁷⁸⁾ “그리고 이 열매들이 없으면 그 증언[성령의 증언]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증언은 여

67) 빌 4: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8) 벧전 1: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니.

69) 롬 5: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70) 히 5:14.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71) 골 3: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72)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73) 존 웨슬리, 설교 “신생”, II.4. 이선희 역, 「존 웨슬리 설교선집(I)」, (대전 : Holy Mountain, 2016), 442-444.

74) 욥 42:5-6.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⁶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75) 존 웨슬리, 설교 “성령의 증언(I)”, II.6.

76)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77) 골 3: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78) 존 웨슬리, 설교 “성령의 증언(I)”, II.12.

하한 외적 죄를 범하는 것 또는 알고 있는 의무를 행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여하한 내적 죄에 길을 내주는 것, 한 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해 드리는 여하한 것에 의해서도 불가피하게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⁷⁹⁾

(6) **점진적 성화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영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⁸⁰⁾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의 움직임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듯이 인식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복된 사랑이 ‘우리 가슴 안에 부어져 충만해 질 수 있으며’⁸¹⁾,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듯이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이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과의 완전한 일치에 이루어내시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⁸²⁾ 하시는 것이다. ... 그러므로 믿는 자의 가슴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에 일치하는 것처럼 그의 삶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에 일치한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처신을 육신의 지혜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직 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해 오고 있다는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의 증거이다’⁸³⁾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⁸⁴⁾

(7) **점진적 성화에 있어서 은혜의 수단 사용:** “성화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네가 긍정하는 바로 그 선행들은 어떤 것들인가? 첫째로 같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 가족 기도, 혼자 밀실에서 드리는 기도, 성만찬을 받는 것, 성경을 들으며 읽으며 명상하면서 탐구하는 것,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금식이나 일정한 음식을 삼가는 것과 같은 모든 경건의 행위들이다. 둘째로, 모든 자비의 행위들이다. 이는 사람의 몸에 관련된 것이든 영혼에 관련된 것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배고픈 자를 먹이기, 헐벗은 자를 입히기, 낮 설은 자를 채우기, 감옥에 있는 자들을 방문하기, 병든 자들을 방문하기,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방문하기; 그리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기, 어리석은 죄인을 깨우기, 미지근한 자들을 분발시키기, 동요하는 자들을 굳세게 하기, 의지가 박약한 자들을 위로하기, 유혹 받는 자들을 구조하기, 또는 영혼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헌하기. 이것이 완전한 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성화를 기다리기 위하여 따라 가도록 지정하신 길이다. ... 이 회개와 회개의 열매 모두가 완전한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지라도, 이들은 믿음과 동일한 의미에서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과 동일한 정도로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 이 회개의 열매들은 ‘만약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과

79) 존 웨슬리, 설교 “성령의 증언(II)”, II,1.

80) 고후 4:6.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81) 롬 5: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82) 고후 10: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83) 고후 1:22.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84) 존 웨슬리, 설교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8.

기회가 있다면'이라는 의미에서 단지 조건적으로만 필수적이다. 만약 누가 그런 시간과 기회가 없다면 회개의 열매들 없이도 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없이는 성화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는 아무리 많은 선한 행위들을 했어도 이 모든 것이 전혀 소용이 되지 않는다. 그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믿는 순간에, 회개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이 회개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그는 성화된다. ... 이 회개와 회개의 열매들은 단지 우회적으로만 필수적이다. 즉, 그의 믿음이 지속되며 또한 증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 반면에 믿음은 성화를 위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화를 위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가장 가깝게 필수적인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⁸⁵⁾

(8) 은혜의 수단 사용에는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들은 은혜의 수단 안에 모종의 능력(power)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조만간에 (언제일지 그들은 모른다) 분명히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든지, 아니면 은혜의 수단의 사용에는 일종의 공로(merit)가 있어서 이 공로가 분명히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거룩을 주시거나 또는 거룩 없이도 그들을 용납하시도록 할 것이라고 그들은 안일하게 꿈을 꾸고 있다. ... 행위로써 구원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 우리 자신의 행위 덕분에, 우리 자신의 공로 덕분에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방법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들 안에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수단들 안에서 만나 주시리라고 기대하는 것, 여기에 위에 말한 그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가? ... 은혜의 수단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 ...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은혜의 수단은 마른 낙엽이며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안에는 여하한 공로도 없다. 은혜의 수단의 사용 그 자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 안에서 기다리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오는 바의 그의 값없이 주시는 자비를 이 길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다.”⁸⁶⁾

(9) 그리스도인의 완전: “우리가 그로 인하여 성화되는, 즉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성경에 약속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확신(a divine evidence and conviction)이다. ... 둘째로, 이 믿음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여 이를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확신이다. ... 셋째로, 이 믿음은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행하실 수 있으며 지금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확신이다. ...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의 이 위대한 역사를 점진적으로 이루시는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이루시는가? ... 주님이 죄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숨으로’⁸⁷⁾ 한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파괴하시는 것을 무한히 바라마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하신다. ... 그러므로 너는 매순

85) 존 웨슬리,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 III,9-13.

86) 존 웨슬리, 설교 “은혜의 수단”, II,4-V,4.

87) 욥 15:30.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간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고 기대하라. 위에 서술한 방법으로 이것을 구하고 기대하라. ... 이 위대한 역사를 믿음에 의하여 기대하고, 이것을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의 상태에서 기대하고, 이것을 지금 기대하라!”⁸⁸⁾

(10)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시는 순간: “우리가 ‘성령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일지라도’⁸⁹⁾ 그리고 외적 죄와 내적 죄를 모두 저항하여 정복할지라도,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의 적들을 약화시킬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내어 쫓을 수는 없다. 칭의 때 받은 은혜를 모두 가지고도 우리는 그들을 뿌리째 뽑아 버릴 수는 없다. 우리가 갈수록 근신하고 기도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손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기까지는, 즉 ‘깨끗해져라’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기까지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극히 분명하다. 그러면 오로지 그 때에 ‘문둥병이 깨끗해진다.’⁹⁰⁾ 오로지 그 때에 그 악한 뿌리는, 즉 육적인 마음은 파괴된다. 그리고 타고난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두 번째 변화가 없다면, 만약 칭의 이후에 있는 그런 순간적으로 건져 내시는 것이 없다면, 만약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 이외에 다른 역사가 없다면 (물론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죄로 가득 찬 채로 있어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또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⁹¹⁾

6. 교회론

6.0. 교회론의 정의: 교회론도 크게 두 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가지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교리이고, 두 번째 가지는 교회의 하는 일에 대한 교리이다. 첫째로 교회의 본질에 관한 교리는 역사적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적이고 불가시적 교회에 관한 교리이고, 둘째로 교회의 하는 일에 관한 교리는 역사적 시간과 장소 안에서 복음의 증거와 성례전과 교회의 행정적 다스림에 관한 교리이다.

6.1. 교회의 본질에 관한 교리: 이 교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⁹²⁾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리로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신칭의와 신생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언을 받음으로써 성화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의 신앙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믿음 안에서, 동일하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에 대한 하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영혼을 갖고 그 영혼에

88) 존 웨슬리,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 III, 14-18.

89) 롬 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90) 마 8: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91) 존 웨슬리, 설교 “믿는 자들의 회개”, I, 20.

92) 엡 4:1-6.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²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³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⁴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⁵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⁶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합당한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공동체인 보편적 교회에 관한 교리이다.

웨슬리의 가르침:

(1) **보편적 교회**: “하나님이 그 자신의 피로써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⁹³⁾라는 말씀에서 교회는 의심할 바 없이 공교회(catholic church) 또는 보편적 교회(universal church)를 의미한다. 즉,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 누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 교회 전체,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 여기서 말하는 특징들에 일치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다.”⁹⁴⁾

(2) **보편적 교회의 핵심 특징들**: 보편적 교회 안에는 [1]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살아 있는 구성원들을 생명력 있게 하시는 **한 분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⁹⁵⁾ [2] 이 성령을 받은 그 구성원들 모두 안에는 **한 소망**이 있는 바, 그것은 **불멸에 대한 기대로 충만한 소망**이다. 그들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시야는 무덤 너머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3] 이제 그들은 다스리시는 **한 분 주님이 계신다**. 그는 그의 나라를 그들의 가슴 안에 세우셨으며, 그 소망을 공유한 그들 모두 위에서 다스리신다. [4] **하나의 믿음**이 있는 바, 이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그들의 소망의 근거이다. ... 이 믿음은 ‘내가 지금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이다. [5] **하나의 세례**가 있는 바, 우리의 한 주님이 그의 교회 위에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신 저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외적 상징으로서 지정하신 하나의 세례가 있다. 이 세례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그들에게 그로 인하여 이 믿음과 소망이 주어지는 소중한 수단이다. [6] ‘아바, 아버지라고 그들의 가슴 안에서 부르짖는’ **입양의 성령을 가진 모든 자들의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 입양의 성령은 그들의 영과 더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언한다. ...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어 위에 말한 그런 특징들을 갖도록 자격을 부여하신, 즉 한 영으로 연합된 한 몸이 되도록 하시고, 한 믿음, 한 소망, 하나의 세례,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관통하시며, 만유 안에 계신 만인의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을 갖도록 자격을 주신 우주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다.”⁹⁶⁾

6.2. 교회의 하는 일에 관한 교리

6.2.1. 종교강령 25개 조항 제13조 “교회”는 가시적 교회를 이렇게 규정한다: “그리스도의 가시적 교회는 믿는 자들의 회중인 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설교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규정을 따라서, 그리고 그 규정에 따르기 위하여 필수적인 모든 것들 안에서 성례전이 합당하게 집행된다.”

(1) **성례전: 종교강령 25개 조항 제16조 “성례”의 성례전 정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규정되

93) 행 20: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94) 존 웨슬리, 설교 “교회에 관하여”, 5.

95)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6) 존 웨슬리, 설교 “교회에 관하여”, 7-14.

고 명하여진 성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을 나타내는 표징이나 징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분명한 상징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바, 이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생기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강화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규정하고 명하신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세례와 성만찬이다. 보통 성례라고 부르는 다섯 가지, 즉 견진, 고백성사, 서품성사, 혼배성사, 종유성사는 복음서의 성례들로 간주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부는 사도들의 전승의 부패로부터 자라난 것이요, 일부는 성경에 허락되어 있는 실생활에서의 의식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여하한 가시적 상징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세례와 성만찬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응시하거나 휴대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례를 합당한 방법으로 받을 때에만 성례는 온전한 효과 또는 작용을 갖는 것이다. 성례를 합당하지 않게 받는 자들은 성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정죄를 자초하는 것이다.”

(1).1. 세례: 종교강령 25개 조항 제17조 “세례”의 세례 규정: “세례는 신앙고백의 한 표징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받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 구별의 표식일 뿐만 아니라, 중생 즉 신생의 한 표징이기도 하다. 어린아이들의 세례는 교회 안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웨슬리의 가르침:

“세례가 곧 신생은 아니다. 이 둘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 비국교파 교회의 판단은 그들의 「대교리문답」에 명백히 선언되어 있다: ‘질문: 하나의 성례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가? 답: 하나의 성례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다. 하나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상징이고, ... 다른 하나는 이것으로써 상징되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다. ... 질문: 세례란 무엇인가? 답: 세례란 하나의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써 거듭난 것을 ... 상징하고 보증하기 위하여 ... 물로써 씻으라고 제정하신 것이다.’⁹⁷⁾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세례는 상징으로서 이 상징이 나타내는 사실 자체인 중생과 구별되어 언급되고 있다. 「교회 교리문답」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판단이 지극히 명료하게 선언되어 있다: ‘너는 ‘성례’라는 말로써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상징을 의미한다. ... 세례에 있어서 외적인 부분 또는 형식은 무엇인가?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물이다. 그러면 내적 부분, 즉 이로써 상징되는 그 사실 자체는 무엇인가? 죄에 대한 죽음이요, 의에로의 신생이다.’ 그러므로 영국 국교회에 따르면, 세례는 신생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 하나는 외적인 역사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역사라는 사실보다 더 명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는 가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가시적인 것이므로 상호간에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나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의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나는 변화이다. 그러므로 영혼과 몸이 구별되고, 물이 성령과 구별되듯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 둘은 상호간에 구별되는 것이다. ... 신생이 세례와 같은 것

97) 1647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제정한 대교리문답, 163, 165.

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생이 세례에 항상 동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 둘은 항상 병행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물로써 태어났다’⁹⁸⁾ 할지라도 ‘성령으로써 태어나지’⁹⁹⁾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내적 은혜가 없이 외적인 상징만 있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 우리 교회는 유아 시절에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례 받음과 동시에 거듭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유아세례의 전 과정은 이런 가정을 전제하고 수행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¹⁰⁰⁾

(1).2. 성만찬: 종교강령 25개 조항 제18조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사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사랑을 상징하는 표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우리의 구속의 성례인 바, 그런 만큼 우리가 떼는 빵을 올바르게, 합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받음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축복의 잔을 올바르게, 합당하게 믿음을 갖고 받음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화체설, 즉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변화된다는 설은 성경으로써 입증될 수 없는 것이며, 성경의 평이하고도 분명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성례의 본질을 뒤집어엎는 것이고, 많은 미신들이 발생하는 빌미를 주어왔던 것이다.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천상적이고 영적인 방식을 따라서만 주어지고, 취하여지고, 섭취되어지는 것이다.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섭취하는 수단은 믿음이다. 주의 만찬의 성례를 보관하거나 휴대하고 다니거나 들어 올리거나 경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종교강령 25개 조항 제19조 “평신도에게 빵과 포도주를 모두 주어야 함”: “주의 잔을 평신도들에게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모두 그리스도의 규정과 명령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강령 25개 조항 제20조 “그리스도의 봉헌은 십자가에서 종결된 것임”: “그리스도의 봉헌은 한 번 드러짐으로 인하여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포함하여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완전하게 죄값을 지불하고(구속),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지게 하며(화목제물), 완전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드린 제물(만족스런 배상)인 바, 오직 이 제물 이외에 죄를 위한 다른 만족스런 배상이 없다.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바 사제가 산 자와 죽은 자의 고통의 용서나 죄책의 용서를 받도록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린다는 미사의 희생제사는 신성모독적인 허구요 위험한 기만이다.”

웨슬리의 가르침:

(1)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만찬의 의미: “여하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다 음의 사실을 너의 영혼에 깊이 새기도록 하라: 은혜의 수단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 은혜의 수단 그 자체는 빈약한 것이며 죽은 것이며 공허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은혜의 수단은 마른 낙엽이며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안에는 여하한 공로가 없다. 은혜의 수단의 사용 그 자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총애를 받아 마땅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의 혀를 시원하게 할 만한 한 방울의 물방울조차도 없다

98)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99) 요 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100) 존 웨슬리, 설교 “신생”, IV,1-2.

[눅 16:24].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 안에서 기다리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오는 바의 그의 값없이 주시는 자비를 이 길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opus operatum, 즉 행하여진 행위 그 자체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너의 가슴에 새겨라.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만 있으며, 공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네 가슴 안에 새겨라. 따라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라도, 만일 네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네 영혼에 아무런 은혜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 가슴에 새겨라. 다른 한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그는 모든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로부터 단절되어 있을지라도, 지구의 한 가운데에 갇혀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라. 모든 외적인 것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을 그리고 그의 아들의 공로만을 바라보라. [은혜의 수단을 행하는] 행위 그 자체에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은혜의 수단 그 자체에 매달리면, 그 행위는 모두 헛수고가 될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엡 4:6].

또한 모든 은혜의 수단들은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은혜의 수단 그 자체를 위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의와 진정한 거룩 안에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규정된 수단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은혜의 수단들이 실제로 이것을 지향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은혜의 수단들은 똥이요 쓰레기일 뿐이다.”¹⁰¹⁾

(2) 성만찬의 효과와 합당한 준비: “성만찬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들의 용서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갖게 하며, 죄들을 떠날 수 있는 힘을 준다. 우리의 몸이 빵과 포도주에 의하여 힘을 얻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표징들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의무 수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이하고도 분명한 명령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죄들의 용서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복종할 힘을 얻기를 바란다면, 주의 만찬을 받는 어떤 기회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 그들의 시간이 허용하는 때마다 언제나 이것을[주의 만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성찰과 기도로써 이 엄숙한 은혜의 수단을 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경우든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평소에 늘 갖추고 있어야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겠다는 가슴에 충만한 목적의식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받고자 하는 진지한 염원이다.”¹⁰²⁾

(3) 성만찬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이다: “지난번에 자세히 말한 대로,

① 주의 만찬은 사람들에게 각각 필요한 대로 선행은혜 또는 칭의은혜 또는 성화은혜를 전달

101) 존 웨슬리, 설교 “은혜의 수단”, V,4.

102) 존 웨슬리, 설교 “항시적인 성만찬의 의무”, I,1-6.

해 주시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지정된 것이다. ②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지정된 것인가 하면, 그들을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또는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알고 느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지정된 것이다. ③ 우리가 주의 만찬을 받으러 나오는 것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것인 한, 먼저 반드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고자 하는 염원만 있으면 된다. (4) 주의 만찬을 받는 그 순간에는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한 깨달음,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죄인이요 무력하다는 깨달음 이외에 달리 다른 적합함이란 없다. 그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기에 적합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다른 모든 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에서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기에 딱 적합한 상태인 것이다.”¹⁰³⁾

7. 종말론

7.0. 종말론의 정의: 종말론은 마지막의 일들에 관한 교리이다. 종말론은 크게 두 개의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가지는 **개인적 종말론**으로서 각 개인의 생물학적 죽음과 그 죽음 이후 영혼의 존재 방식에 관한 가르침이고, 두 번째 가지는 **우주적 종말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과 이어져 있을 현재의 물질세상의 폐지와 동시에 비물질로 새로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과 영벌에 관한 가르침이다.

7.1. 개인적 종말론.

(1) **몸을 떠난 영혼의 거처인 하데스(hades)는 낙원과 지옥을 다 포함한다:** 개인적 종말론의 핵심 주제는 사람의 생물학적인 죽음의 순간에 몸을 떠난 영혼의 존재 방식에 관한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하데스(hades; ᾗδης)라고 표시된 곳이 몸을 떠난 영혼들이 거하는 곳이다. 예컨대 요한계시록 20:13의 hades(ᾗδης)는 개역성경에서는 음부(陰府)라고 번역했고, King James Version은 “hell”로 번역했다. 표준새번역에서는 ‘지옥’, 한국천주교주교회의(편찬) ‘성경’에서는 “저승”, Die Heilige Schrift. Einheitsübersetzung(독일판 친구교 공동번역)에서는 “die Unterwelt”(아래 세상)라고 번역하고, NIV(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hades”라고 음역하였다. 루터 번역 성경에서는 “der Tod und sein Reich”, 즉 “죽음의 나라”라고 했고, 취리히 성경(Zürcher Bibel)에서는 “das Totenreich”, 즉 “죽은 자들의 나라”라고 하였다. 웨슬리의 ‘신약성경주해’(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에서는 “hades”로 음역하였다.

웨슬리가 이 단어를 그냥 음역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는 hades가 두 영역, 즉 낙원(paradise)과 지옥(hell)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낙원은 누가복음의 개념과 같이(눅 23:42f.; 16:19-31)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부르는 곳으로서 마지막 심판 후에 영생으로 갈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 때까지 임시로 있는 곳이고, 지옥은 마지막 심판 후 영벌로 갈 죽은

103) 존 웨슬리, 일지, 1740년 6월 28일 토요일.

자들의 영혼이 그 때까지 임시로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웨슬리는 hades를 단순히 지옥이 아니라 낙원과 지옥으로 구성된 “불가시적 세계”(the invisible world)라고 본다. 그러므로 hades를 “hell” 또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구성 영역 중 지옥을 의미하고자 할 경우에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hades는 낙원도 포함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hades를 “음부”나 “저승”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써오던 이 개념들이 갖는 내포와 외연이 hades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한 번역어는 아니다. 루터 번역에서 “죽음의 나라”(der Tod und sein Reich)라는 번역은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뉘앙스가 강하여 hades는 사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이라는 성경의 뉘앙스하고는 차이가 있다. 독일판 공동번역에서 “die Unterwelt”(아래 세상)라고 번역한 것은 물론 독일어 자체로서는 ‘죽은 자들의 영역’(Totenreich)이라는 뜻이지만, ‘땅 아래의 영역’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서 성경의 hades가 원래 땅 아래의 영역이라는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뜻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hades(ᾍδης)는 그냥 “하데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웨슬리도 영어에 적합한 번역어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hades”라고 번역한다. 그는 요한계시록 20:13의 주해에서 “hades, the receptacle of separate souls”(“하데스, 즉 몸과 분리된 영혼들의 [마지막심판 때까지의 임시적] 대피소”)라고 정의한다.

웨슬리의 가르침:

“영어권 번역자들은 이 단어[hades]를 어떤 말로 번역해야 좋을지 몰라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다. 200년 전에는 이 단어를 ‘지옥’(hell)이라는 말로 번역해도 그런대로 용인했었다. 그 때에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hades’라는 단어, 즉 불가시적 세계라는 이 말과 거의 동의어였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벧전 3:19-20]라는 말로써 그 번역자들은 그의 몸은 무덤에 여전히 있고, 그의 영혼은 몸과 분리된 영혼들이 죽음의 시점부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대피소인 하데스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의로운 자들의 영들은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사도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주님과 교제를 특별하게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있다[빌 1:23]. 다른 한편,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신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부자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문의 상태로 돌입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데스에서는 거룩한 영들의 장소와 거룩하지 않은 영들의 장소 사이에 “큰 간격이 고정되어 있어서”[눅 16:26]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학식이 높은 한 신사, 즉 존경하는 캠벨(Campbell)씨가 몇 년 전에 발행한 이 중간상태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상상하기를 악한 영혼들이 하데스에서 행실을 고치고 개심할 수도 있으며, 그런 후에는 좀 더 행복한 저택으로 옮겨 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주님이 언급하신 그 부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좋은 거처에 합당하게 정도로 그 처벌의 불로써 정화될 것이라는 야무진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큰 간격”을 넘어 갈 수 없다고 말한 아브라함의 말과 그의 이 말을 그 누가 조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그 부자와 함께 하데스의 지역들 가운데 그 불행한 분할지역에 있는 모든 영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마 25:41] 속으로 던져질 때까지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그곳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른 한편, 지금 낙원(paradise)에, 즉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들, 이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몸을 떠난 의로운 자들의 영혼들은 “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나라”[마 25:34]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때까지 그 하늘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숙되어가며 끊임없이 더 거룩해지며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겠는가?”¹⁰⁴⁾

(2) 우주 안에서의 하데스의 위치는 알 수 없다: 웨슬리에 의하면 “행복한 영들도 그리고 불행한 영들도 그들이 그들의 몸[=신령한 몸, 고전 15장]과 재결합할 때까지 거하는 이 거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누가 우리에게 알려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성경에 여하한 것이라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그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추측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¹⁰⁵⁾

(3) 하데스에 있는 영혼들의 하는 일들: 하데스에 있는 영혼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나, 웨슬리는 성경의 암시적인 언급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몸을 떠나서 하데스의 지옥에 있는 악한 영혼들은 그 지옥에 있는 악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하에서, “하나님의 어두운 심부름들”을 수행한다. 반면에 몸을 떠나서 하데스의 낙원에 있는 선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하에서, 그 낙원에 있는 선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심부름들”을 수행한다.

웨슬리의 가르침:

“우리는 행복한 영혼들이나 불행한 영혼들이나 그곳의 거처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하여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렇게 틀리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악한 영혼들의 하는 일]**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악한 영혼들에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어두운 심부름들을 하게 허락하신다. 또는 악한 천사들과 연계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가하도록 허락하신다. 또는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은 저 큰 날의 큰 심판[=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어두움의 사슬에 묶여 있지 않겠는가? **[선한 영혼들의 하는 일]** 다른 한편, 의로운 자들의 영들은, 일반적으로 낙원에 거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때로는 거룩한 천사들과 연계하여,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는가고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히 1:14]? 그들은 ‘때때로 사랑의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에 있는 형제들을 다시 방문하지 않겠는가?’ 천사들과 함께든지 또는 천사들을 대신해서든지 우리의 시중을 드는 이 인간의 영들 가운데 일부는 그들이 품에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사랑스러웠던 그들만큼의 숫자라고 하는 생각은 기분 좋은 생각이다. 그러므로 ‘상호 공동의 대속물[=그리스도]로 산 너희들 자신의 육친을 잊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영들을 죽음의 밑물이 끼어들어서 갈라놓을 수 있단 말인가?’[John and Charles Wesley, *Hymns and Sacred Poems*(1740)]라는 질문 속에는 말이 안 된다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곳에서 인간의 영들은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들에서

104) 존 웨슬리, 설교 “믿음에 관하여, 히 11:1”, 4-5.

105) Ibid., 6.

살았던 지혜롭고 거룩한 영혼들과 대화하면서 지식과 거룩함과 행복에 있어서 빨리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사람의 자녀들은 그에 비하면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천사들 및 천사장들과 대화하면서, 또한 무엇보다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빨리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은 배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히 잊지 않고 간직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망각하는 것은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영들에게만 있는 현상이다.”¹⁰⁶⁾

7.2. 우주적 종말론

(1)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있을 일들. 죽은 자들의 부활: 웨슬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래로 땅에서 창조들을 보여 주실 것이다. 특히 하나님은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사 2:19). ... 지구의 모든 물들이 이런 충들의 격렬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 하늘의 능력들도 흔들릴 것이다. ... 그런 다음에 하늘의 모든 천군천사들의 무리로부터 나오는 우주를 울리는 외침이 들릴 것이며, 그 뒤를 이어 하나님과 사람의 아들의 임박하심을 알리는 ‘천사장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 ‘땅의 먼지 속에서 잠자고 있는’(단 12:2) 모든 자들에게 경보를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살전 4:16)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결과로 모든 무덤이 열릴 것이며, 사람들의 시신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다도 그 속에 들어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 줄 것이다’(계 20:13).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 자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이 썩을 몸이 그 때는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고, 가멸적 몸이 불가멸성을 입을 것이다(고전 15:53). ‘죽음과 하데스가, 즉 불가시적 세계가, 지금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살았다가 죽은 모든 자들이 썩지 않을 그리고 죽지 않을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¹⁰⁷⁾ 그 시간에 살아 있는 사람들도 모두 물질로 된 썩을 몸을 벗고, 순식간에 비물질의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 15:51-53).

(2) 부활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섬: 이렇게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죽어있든지 또는 살아있든지 간에, 선한 영혼이든지 악한 영혼이든지 간에, 썩지 않을 비물질의 몸을 입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게 될 것이다.

웨슬리의 가르침:

“동시에 ‘인자가 자기의 천사들을’ 온 땅 위에 보낼 것이고, 그들은 하늘의 이 끝에 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네 바람의 방향으로부터 그의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마 24:31). 그리고 주님 자신은 ‘그 자신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수만의 그의 성도들과 함께’(유 14) 또한 ‘천만천사와 함께’(히 12:22)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모든 민족들이 모여지게 될 것이

106) Ibid., 6.

107) 존 웨슬리, 설교 “대심판”, I.1.

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갈라놓을 것이다. 그의 오른편에는 양들을(선한 자들을) 놓을 것이고, 그의 왼편에는 염소들을(악한 자들을) 놓을 것이다(마 25:31-33).¹⁰⁸⁾

(3) 마지막 심판에서의 이실직고와 드러나게 됨: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 선한 영혼도 악한 영혼도 그들의 영혼에 기록된 전 생애 동안의 모든 영혼의 기질들과 생각들과 말들과 행위들이 심판주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2-13).

웨슬리의 가르침:

“그리고 모든 자들은 거기서 ‘그 자신의 행한 일들에 대하여 이실직고하게’(롬 14:12) 될 것이다. 거기서 그는 그가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 행한 모든 일들, 선한 일 이든 악한 일 이든 모두 사실 그대로 다 직고하게 될 것이다. ...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이실직고하게 될 것인즉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또는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6-37) 하신 말씀을 볼 때, 그들이 한 모든 말도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 하나님은 어둠 속의 숨은 행위들만이 아니라, ‘가슴의 생각들과 뜻한 것들’(히 4:12)도 드러내실 것이다. ... 그리고 그 날에는 모든 사람의 영혼의 모든 내적 활동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모든 취향, 걱정, 성향, 정서, 이것들이 서로 간에 다양하게 섞여서 나오는 상태들, 그리고 각인의 복합적인 특성 전체를 구성하는 기질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¹⁰⁹⁾

(4) 마지막 심판에서의 판결과 선고: 마지막 심판에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판결의 기준은 각 인간이 자신의 영혼의 내적 기질의 상태에 근거하여 행한 외적 행위들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면서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여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롬 2:7-8). 이와 같은 기준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더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응(μισθός, 상과 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ἔργον, 행위) 갚아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다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선한 행위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규정하신 기준에 일치함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은 믿음, 소망, 사랑이요, 영혼의 선한 기질인 믿음, 소망, 사랑에 근거하여 행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0-13). 믿음, 소망, 사랑은 부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것이 오는 마지막 심판 시에 폐하여

108) Ibid., I,2.

109) Ibid., II,1-7.

지지 않고 항상 있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 시 판결의 소재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내적 기질인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나오는 외적 행위라야 선행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행위들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들이라는 뜻이다. 이신칭의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한 것도 아니고, 명하신 대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갖는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기 이전에 행한 모든 행위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종의 믿음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다. 그렇다,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대로 된 것이 아니요, 또한 명하셨던 바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오히려 죄의 본질을 갖는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¹¹⁰⁾

[선한 자들에 대한 판결]:

웨슬리의 가르침:

“그러면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라, 나의 아버지로부터 복 받을 너희여,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들어오게 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것이다’(마 25:34-36).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 땅 위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낭송될 것이다. 그들이 ‘말이든지 행위든지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골 3:17), 또는 주 예수님을 위하여, 행했던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낭송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선한 열망들, 선한 의도들, 선한 생각들, 그들의 거룩한 기질들 모두가 또한 그 때에 기억될 것이다. 그들이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잊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이다’(사 30:8).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선한 양심의 증언을 위하여 당했던 그들의 모든 고난들이 마찬가지로 열거될 것이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재판관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할 것이며, 성도들과 천사들 앞에서 명예롭게 할 것이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고후 4:17)를 증가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¹¹¹⁾

[악한 자들에 대한 판결]:

웨슬리의 가르침:

“한 사람의 전 생애를 놓고 볼 때 ‘이 땅 위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전 7:20)라는 말씀이 있으니, 그들의 악한 행위들도 그 날에 기억되며 그 큰 회중 앞에서 언급될 것인가? ... 그들의 삶의 모든 주변 상황들을 그들의 모든 기질들과 모든 열망들과 생각들과 그들의 가슴 속의 모든 의도들과 함께 활짝 다 열어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상속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능력과 자비를 명백하고도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명백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얼마나 깊은 죄와 비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냈는지를 드러낼 수 있겠는가? 만약 모든 인간의 삶 전체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실로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구성 전체를 명백하게 드러낼 수 없을

110) 존 웨슬리,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 III, 5.

111) Ibid., II, 8.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결국은 다]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수천 가지의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마 10:26)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떤 제한이나 한계 없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면, 해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세상경륜은 정당한 이유 없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숨은 일들을 드러내신 후에야 비로소, 그 일의 행위자들이 누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 지혜로우며 선하다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뻑뻑한 구름을 뚫고 보셨으며’(욥 22:12-14), 모든 일을 그 원하시는 생각대로 지혜롭게 섭리하셨으며, 어떤 일도 인간의 우연이나 변덕에 내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강력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섭리하신 것이며, 모든 일을 하나로 연결된 ‘정의와 자비와 진리’(미 6:8)의 사슬로 엮으셨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¹¹²⁾

(5) 마지막 심판의 선고: 선한 자들에게는 최종적 칭의(final justification)가 선고되고, 악한 자들에게는 최종적 징죄(final condemnation)가 선고된다.

[선한 자들에 대한 선고]:

웨슬리의 가르침:

“그리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드러나게 될 때에 의로운 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 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씻기어져서 오래 전에 이미 구름처럼 흩어버린 그 과거의 범죄들 때문에 여하한 고통스러운 슬픔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으로부터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범했던 모든 범죄들이 그들에게 다시 또 언급되어’(겔 18:22)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들의 죄들과 범죄들과 죄악들이 그들을 징죄하기 위해 다시 기억되는 일이 없을 것’(히 8:12; 10:17)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넘치도록 충분할 것이다. 이것이 그 약속의 평이하고도 명백한 의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이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 것이다.”¹¹³⁾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죄방면의 즐거운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¹¹⁴⁾

[악한 자들에 대한 선고]:

웨슬리의 가르침:

“이렇게 의로운 자들에 대한 재판이 끝난 후에 이제 왕은 그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그들도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각인이 모두 ‘각자 행한 행위들에 따라서’(마 16:27)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외적 행위들만이 이실직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말하고 살았던 모든 악한 말들도, 아니 그들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악한 욕망들과 정서들과 기질들도,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한번이라도 품었었던 생각들이나 계획들도 이실직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죄방면의 즐거운 선고가 내려질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

112) Ibid., II,9-10.

113) Ibid., II,11.

114) Ibid., II,12.

죄의 끔찍한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양쪽의 선고들은 모두 그렇게 확정되고 하나님의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¹¹⁵⁾

(6) 마지막 심판의 선고의 집행: 선한 자들에게 내려진 최종적 칭의의 선고가 집행됨으로써 선한 자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비물질의 신령한 하늘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내려진 최종적 정죄의 선고가 집행됨으로써 악한 자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비물질의 몸을 입고 영벌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히 타는 그곳인 바, 그들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

[선한 자들에 대한 선고의 집행]:

웨슬리의 가르침: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 ‘그 때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고’(마 13:43),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즐거움의 강에서 영원히 마실 것이다’(시 16:11). 그러나 묘사는 여기까지다.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더 이상 묘사할 수가 없다. 삼층천으로 끌어 올려졌던(고후 12:2) 자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도 그가 본 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바로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고후 12:4) 그런 것이다.”¹¹⁶⁾

[악한 자들에 대한 선고의 집행]:

웨슬리의 가르침:

“다른 한편 악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잊은 모든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다(shall be turned into hell).’(시 9:17) 그들은 ‘주의 임재와 주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떼어내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살후 1:9) 그들은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연못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계 19:20) 이 불 연못은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마 25:41) 잡아넣기 위하여 준비되었던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고뇌와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 것이다’(계 16:10).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볼 것이다’(사 8:21). 거기서는 지옥의 개들, 즉 교만, 적의, 복수심, 격노, 공포, 절망이 끊임없이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밤낮없이 안식이 없을 것이며, 그들을 고문하는 연기가 영원히 위로 올라갈 것이다’(계 14:11)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않을 것이며,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마 9:44).’¹¹⁷⁾

[소위 중간상태에서의 회개는 없다]: 생물학적 죽음 이후 영혼이 몸을 떠나서 하데스에 있게 된 시점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사이에 영혼은 ‘중간상태’(a middle state)에 있다는 웨슬리의 교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mortal) 죄들을 갖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자신의 상태를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운명(human destiny), 즉 영생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벌로 가느냐 하는 운명은 죽을 때 이미, 따라서 마지막

115) Ibid., II,12.

116) Ibid., III,1.

117) Ibid., III,1.

막 심판 이전에 이미, 미리 결정되는 것이다. 즉, 하데스의 낙원 영역에 있던 영혼들은 마지막 심판의 결과 반드시 영생으로 가게 되고, 하데스의 지옥 영역에 있던 영혼들은 마지막 심판의 결과 반드시 영벌로 가게 되는 것이다.

웨슬리의 가르침:

“고대의 연옥과 현대의 연옥의 이 유사성을 보라. 고대의 연옥, 이교도의 연옥에서만 불과 물과 공기가 죄를 씻어내고 영혼을 정화 하는 데 사용되었다. 반면에 신비주의적 연옥에서는 오직 불 하나만으로 죄를 씻어내고 영혼을 정화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헛된 희망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외의 어떠한 고난도 죄를 씻어내는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사랑의 불 이외에 어떠한 불도 영혼을 정화하지 못한다. 이생에서도 영원에서도 그렇다”¹¹⁸⁾

종교강령 25개조항 제14조 “연옥”: “연옥, 죄를 용서해줌, 성상 및 성물의 경배 및 숭배, 성인들에게 간구함 같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리는 경솔한 맹신이요, 헛되이 창안하여 성경의 어디에도 근거를 갖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 조항도 사후에 영혼이 예컨대 연옥에서 회개하고 정화될 수 있다는 헛된 이론을 배경한다.

(7) 물질세상의 폐지와 비물질적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물질세상의 폐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의 소극적 차원, 즉 “때가 찼다”(막 1:15)는 복음의 완성.

마지막 심판이 모두 끝나고, 이제 현재의 물질세상 전체는 폐지되고, 비물질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이 창조된다. 그리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막 1:15)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때가 찼다’는 것은 물질로 된 현재의 세상 전체가 창조 시에 입력되었던 종료 및 폐지의 시간이 거의 다 찼다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그 다음 순서인 비물질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가까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는 믿음으로써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복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는 말씀이었던 것이다.

웨슬리의 가르침:

“그런 다음에 하늘이 양피지 두루마리처럼(계 6:14) 줄어들 것이며, '큰 소리를 내면서 사라질 것이다'(벧후 3:10). 하늘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면전으로부터 사라질 것이며, 그곳에는 하늘이 있을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계 20:11). 하늘이 사라지는 방식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다'(벧후 3:12). 그 아름다운 구조물 전체가 그 맹렬한 요소에 의하여 전복될 것이며, 그 모든 부분들의 연결들이 파괴되고, 모든 원자들이 서로 간에 붙어 있던 것이 찢어져서 떨어져나갈 것이다. 그 불에 의하여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이 불타서 없어질'

118) 존 웨슬리, 설교 “부자와 나사로”, 1.5.

것이다’(벧후 3:10). ... 그러하니 인공의 작품들은, 그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견뎌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근면과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하자면 무덤들과 기둥들과 개선문들과 성들과 피라미드 같은 것들은 이 불타는 정복자를 얼마나 더 이길 능력이 없겠는가. 모든 것은, 실로 모든 것은 죽고 멸망하고, 마치도 잠을 깬 때의 꿈처럼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¹¹⁹⁾

[비물질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의 적극적 차원,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막 1:15)는 복음의 완성.

웨슬리의 가르침: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 ... 우리는 그의 약속에 따라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필연적으로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질이 그들 안에서 아주 잘 보이게 빛날 것이다.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촛불도 필요 없고, 태양도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계 22:5).”¹²⁰⁾

119) 존 웨슬리, 설교 “대심판”, III,2.

120) Ibid., III,5.